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뉴스레터 No. 18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8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년 하반기 뉴스레터

-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2 행사/학술/연구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4 교수동정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7 시민환경대학
 - 8 시민정원사

- 동문소식**
- 9 동창회
 - 10 동문동정
 - 11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34기 모집 안내
-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담당교수 윤순진
학과조교 남궁옥, 노초원, 윤병석, 이승지, 임동민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김 배
학생기자 김 수, 김주영
E-Design 흑석동작업장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담당교수 윤순진
학과조교 남궁옥, 노초원, 윤병석, 이승지, 임동민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김 배 학생기자 김 수, 김주영 E-Design 흑석동작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08826 서울 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

학교소식	1. 현장중심의수업소개	3
	2. 행사/학술/연구	9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33
	4. 교수동정	36
	5. 석·박사과정	39
	6.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43
	7. 시민환경대학	47
	8.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48
동문소식	9. 동창회	49
	10. 동문동정	52
	11.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34기 모집안내	58

학교소식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1.1 도시·지역경제연구 : Smart Cities Innovation Summit Asia 2016 참관



환경계획학과 이영성 교수가 담당하는 도시·지역경제연구(Studies in Urban and Regional Economics)는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수업으로서 도시와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 도시경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수업이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등 기술의 변화가 초래하는 도시 및 지역경제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토론하고 학습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9월 22일 이영성 교수와 석·박사과정 학생, 이번 답사를 지원해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총 10명은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 아시아 2016(Smart Cities Innovation Summit Asia 2016)'을 참관하여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전 세계의 흐름과 동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업들과 스마트시티 기획자, 각 나라의 도시 연구자들이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도시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향후 국내에서도 스마트시티를 활용한 교통·주차시스템 등 혁신기술의 빠른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의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1.2 도시사회론 : 샤로수길 답사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의 도시사회론 수업에서는 11월 17일, 샤로수길 일대를 탐방했다. 샤로수길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길 이면도로로서, 서울대 정문에 있는 상징물의 별칭인 '샤와 인기 상권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합성어이다. 샤로수길은 각국의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모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세를 타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다른 지역들에서처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회두에 맞춰서 서울 유명지역이 아닌 서울대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직접 답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토론하였다.

1.3 교통학 전공 여객 및 물류시설 답사

환경계획학과 김성수 교수가 담당하는 대중교통관리 수업과 장수은 교수가 담당하는 교통계획 수업은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시설, 수단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 및 행태와 관련하여 교통계획과 교통운영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이론들을 다룬다.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과 더불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 여객 및 물류시설 현장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자 김포공항과 인천항만 답사를 진행하였다. 두 시설은 각각 한국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항공과 선박을 통해 한국 동북권의 국내외 여객과 물류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오전에 방문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공사 발전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보안통제구역 중 일부를 방문하였다. 한국공항공사 도착 후 바로 장호상 항공기승무원장의 공사 발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내외로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단거리 국제선 취항, 국내 지방공항 활성화, 비즈니스 항공센터 건립, 항공 조종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에너지환경팀 이준호 팀장은 항공소음 영향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시설 답사에서는 항무통제실, 국내선 수하물처리시스템(Baggage Handling System)을 둘러보고 공항시설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인천항만공사의 해상안전체험관과 갑문홍보관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해상안전체험관에서는 국제해상기구의 해상 안전표지, 구명조끼 선택기준 및 착용법, 제세동기 사용법 등 해상재난에 대비한 행동수칙에 대한 설명과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후 갑문홍보관에 방문하여 갑문 홍보비디오를 관람하고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항 갑문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5층 전망대에 올라가 실제 갑문을 운영하는 모습을 관람하였다.



1.4 관광특론 : 풍도의 생태관광 가능성 및 문제점

관광특론(Tourism and Recreation Studies) 강의는 환경조경학과 손용훈 교수가 담당하는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수업으로서, 최근 자연보호 및 지역재생과 관련되어 그 역할이 커져가는 관광을 조경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조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는 개발보다는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지역재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학(觀光學)은 보는 주체(사람, 여행자)의 가치관을 주로 연구하며, 조경학(造景學)은 보이는 개체(경관)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대중관광(Mass tourism)의 형태에서 새롭게 변화하며, 녹색관광(Green Tourism), 생태관광(Eco Tourism), 유산관광(Heritage Tourism), 도시관광(Urban Tourism), 산업관광(Industrial tourism), 지역주체관광(Community Based Tourism) 등 다양한 특수목적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관광은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경관을 주된 자원으로 한다. 본 강의에서는 현장답사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 11~12일 1박 2일간 손용훈 교수와 석·박사과정 학생 15인 등 총 16명이 참여하여 안산시에 위치한 풍도를 탐방하고 생태관광 가능성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풍도는 안산시 대부도로부터 약 24km,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서해 중부의 도서로, 1일 1회의 배편이 운항하고 있어 접근이 다소 제한적인 곳이다. 풍도 주민의 수입원은 소수의 젊은 층에 의한 어업 소득과 경사지의 일부 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 유일하며, 고령화가 심각하여 이마저도 간단한 부업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봄철이 되면 야생화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는데, 특히 풍도대극과 풍도바람꽃은 풍도에서만 관찰되는 식물이다. 또한 해안가는 지속적인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인하여 자갈해안과 다양한 종류의 기암괴석들이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 풍도에서 지역주민의 안내 하에 약 2시간이 소요되는 4.6km의 탐방코스를 이동하며, 주요 지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풍도의 이미지와 관광자원, 생태관광의 가능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이론에서의 생태관광이 실제에서 적용될 방향에 대해 함께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5 환경관리 전공 가리왕산 답사

환경관리 전공은 2016년 9월 30일~10월 1일, 1박 2일 동안 6개의 수업(환경체계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동역학, 기후변화 정책, 비용편익분석, 생지화학)을 통합하여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일대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인근으로 답사를 진행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이동수 교수, 윤순진 교수, 오능환 교수 외 환경관리 전공 학생 27명이 참여하였다. 환경관리 전공 수업 통합 답사는 매 2학기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가리왕산 답사는 2014, 2015년 내성천 답사에 이어, 산림 개발의 명과 암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에너지-환경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가리왕산 답사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래는 답사에 참여한 환경관리 전공 김주영 학생의 답사기를 소개한다.

평창 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을 위해 토목공사가 한창인 현장(정선 북면 속암리)에 환경관리 전공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방문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가리왕산 등반을 기대했건만 우릴 맞이한 것은 공사현장 특유의 뿌연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평창올림픽 알파인 스키 공사 현장이었다. 우리 일행은 환경운동연합의 김경준 국장님으로부터 500년 이상 된 원시림이 2주간의 올림픽을 위해 파괴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원칙인 환경, 사회, 경제 측면에서 공사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고개 들어 산을 바라봤다. 실제로 산 중양을 마치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듯이 밀려버린 험한 가리왕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김 국장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귀에 박히고 심장을 때렸다. 어떤 학우는 흐느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다.

원시림의 아픔이 여실히 전해진 현장을 떠나면서 학우들은 먹먹해진 마음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던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랏? 가리왕산에 가서 정작 가리왕산에는 올라보지 못했네.' 그 전날, 3시간가량 양떼목장을 거닐고, 늦은 밤 선후배간 길은 교류를 통해 많이 피곤했던 터라 등산코스가 따로 없음에 쾌재를 불렀다. 돌아오는 길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다. "모르고 지낸 사실들에 눈 뜨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갈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참가하면 좋겠어요. 환경문제를 잘 풀어가려면 자연과 사회, 사람들과의 공감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가리왕산과 교감했기 때문일까, 나는 마치 가리왕산의 정상을 다녀 온 기분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난생 처음 답사다운 답사를 한 것 같다.



1.6 토양환경학: 남부학술림 답사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에 개설된 토양환경학 수업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간 답사를 진행하였다. 답사가 진행된 곳은 전라남도 백운산 부근에 위치한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추산시험장으로, 산림지역의 다양한 생지화학적 연구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숲과 수문시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답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직접 땅을 파고 토양을 채취해 보았으며, 소유역 산림계류수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물 시료를 채취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 자동측정센서를 연구지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과 토양을 통해 빠져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실제로 측정해보기도 했다.

이번 답사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실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답사 이후에는 채취한 토양 및 물 시료를 실험실로 가져와 토양과 물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들을 직접 시행해 보는 등 학습 활동을 지속하였다. 학생들은 답사를 통해 산림소유역 탄소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실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연구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1.7 정원예술론: 담양 명옥헌, 소재원, 호수생태원 등과 고창 상하농원 답사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정원예술론 수업에서는 지난 10월 3~4일 교수와 조교 1명, 학생 4명이 함께 담양 답사를 다녀왔다. 정원예술론은 정원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예술적 가치를 탐구하는 수업으로, 이번 답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비정원과 정자문화가 발달한 담양과 현대 정원조경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고창의 상하농원을 방문하였다.

담양에서는 명옥헌, 소재원, 식영정 등 전통적인 정원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창평 슬로시티, 황지해 작가의 첼시 플라워쇼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호수생태원, 담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걷기 좋은 길로 유명한 메타세콰이아길을 둘러보았다. 고창의 상하농원은 민간기업에서 6차 산업을 표방하며 조성한 농업체험센터로, 작가가 아트 디렉터로 초빙되어 최신 정원기술들을 의미미하게 사용하면서 새로운 농촌경관을 만들어낸 매우 흥미로운 곳이었다. 학생들은 정원조경의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담은 이번 답사지에서, 유희준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담양을 묘사한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1.8 환경생태계획 : 인천 자연마당, 학의천 답사

환경조경학과 송영근 교수가 지도하는 '환경생태계획'은 환경생태계획의 다양한 지항점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전'에 초점을 맞추어, 생물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이론과 실재를 다룬다. 관련 이론의 검토에서부터 실질적인 환경 조성방안 및 유지관리체계 수립, 평가를 구상에 이르는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이번 학기, 본 수업에서는 두 번의 답사를 통해 수도권 내 생물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직접 가보고 그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9월 26일에는 송영근 교수 외 환경생태계획 수강생 16명 등 총 17명이 인천 자연마당을 답사했다. 설계에 참여하신 넥서스의 정덕훈 본부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환경부 시행사업으로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원과 차별화된 생물서식 중심의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복원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시행 사례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10월 17일에는 송영근 교수 외 환경생태계획 수강생 13명 등 총 14명이 안양시 학의천 일대를 답사했다. 안양시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직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실제 도심지 내 하천의 이용과 주변 녹지와의 연계한 생태 네트워크 형성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견학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행사/학술/연구

21 환경대학원 행사

2016 GSES CAREER DAY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글로벌홀에서 환경대학원 주최, BK21+ 그린인프라 창조인재양성팀과 기후변화적응전략팀의 후원으로, 2014년, 2015년에 이어 3번째 GSES CAREER DAY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도시계획, 환경, 교통, 조경, 도시설계와 관련한 10개의 외부 업체가 참석하여 약 100여 명의 환경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특히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실무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취업을 막연하게 생각하던 학생들은 구체적인 취업의 정보를 얻었을 뿐 아니라 졸업 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참여기관은 STS개발, SH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안건축 조경팀, 국립생태원, PMA엔지니어링, 도시디자인 공장이 참여하였으며, 신지혜 동문(도시97), 조동기 동문(도시98), 임동욱 동문(교통12), 박태운 동문(교통13), 이영지 동문(환경10), 이동길 동문(환경14), 신용승 동문(환경91), 서미경 동문(조경93), 권혁수 동문(조경03), 유나경 동문(조경95), 장경철 동문(조경98) 등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주셨다.



2.2 BK21 Plus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1) Burning Paradise

2016년 9월 6일 환경대학원 308호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주최로 제22차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단체인 MIGHTY 국제정책센터 동남아시아국장으로 있는 Bustar Maitar와 캠페인 디렉터 Deborah Lapidus는 약 20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진행되는 한국기업의 산림파괴 실상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열린 강연을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15년 이상 산림 전용의 실상과 해양보호 문제 및 사회적 정의와 관련한 캠페인을 벌여왔던 Bustar Maitar 지국장은 먼저 글로벌 기업들의 팜 오일 농장 경영과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실상을 소개하였다. 한국기업인 코린도 역시 팜 오일을 이용하여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약 5만 ha 이상의 열대림을 파괴해 왔다. 기업들은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화전(slash-and-burn) 방식으로 임지를 소각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산림 면적의 감소, 산불로 인한 연무(haze)의 발생과 대기오염, 산림 파괴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 오일 산업과 환경문제, 공공보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온 Deborah Lapidus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산림 거버넌스의 부재 등이 지속적인 열대림 파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 활동들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산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재배된 팜 오일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2) Technology Risk, Climate Risk & The Challenge of Just Sustainability

제23차 콜로키움은 2016년 11월 2일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델라웨어 대학(University of Delaware)의 John Byrne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강연실을 가득채운 약 30명의 참석자들 가운데 열린 토론회가 계속되었다.

John Byrne 교수는 먼저 미국의 심해에서 오일 유출 사고가 일어났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3개월이나 걸린 사례를 소개하고, 원전시설 건설 등 우리 사회 깊숙이 기술로 인한 위험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기후변화는 폭풍우와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를 높이기도 하고, 가뭄을 야기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위험도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류 발전의 최적화된 경로는 때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생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로는 생존 가능하지만 최적화된 경로는 아닐 수도 있다. John Byrne 교수는 이러한 기술발전으로 야기되는 위험과 기후변화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우면서도 지속가능한 기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셰일가스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2016년 11월 23일, 환경대학원 308호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주최로 제24차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은 미국 에너지성 산하 지구변화협동연구소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믹전해원(Mijeon Haewon) 박사를 초청하여 네이처, 사이언스 등 학술지에 게재된 그의 기후변화 감축 모델링 관련 연구논문에 관한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은 환경대학원 외에도 교내 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믹전해원 박사는 최근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인 '셰일가스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통합분석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ing)기법의 최적화된 용례를 소개하였다. 셰일가스는 일반적으로 석탄, 석유등과 비교하여 청정한 에너지원이라 이들을 대체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믹전해원 박사가 세계 각국의 4개 팀과 공동 연구한 바에 따르면, 셰일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해도 메탄의 배출이 증가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그리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셰일가스는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이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원 및 원자력발전까지 대체하게 되므로 에너지 시스템은 크게 변할지라도 전체 배출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Joint Global Institute 외 다른 네 곳의 연구소의 모델링 결과 값을 비교해 보아도 탄소의 배출량, 지구의 온도 등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다.



2.3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저명인사 특강: 한국의 주거서비스 현실과 발전방안

2016년 9월 24일, 환경대학원 등문 홈커밍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에서 저명인사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한국의 주거서비스 : 현실과 발전방안"으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등문뿐만 아니라 재학생들까지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특강의 사회는 김대중 등문(도시 93,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담당하였고, 특강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대표 변창흠 부회장(도시 88, SH공사 사장)과 환경대학원 최막중 원장의 인사 및 환영사가 있었다. 강연자인 하성규 등문(도시 77)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로서 전 중앙대 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상임대표로 재직 중이다. 강연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주거서비스 현황, 주거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점, 발전 가능성, 일본의 사례 등 주거서비스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등문 및 재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 토론이 있는 배움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2) 장소와 문화연구회 세미나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 연구실에서는 「장소와 문화연구회」모임을 주관하면서 정기적으로 독서토론회와 이를 연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에는 축출자본주의, 런던 코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와 문화연구회에서는 7월 1~2일 속초 워크샵과 병행하여 7월 1일 설악문화센터에서 사스키아 사센의 '축출자본주의에 대해 토론하였다. 사스키아 사센은 '축출'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람과 기억, 장소가 우리 사회경제의 주요 질서로부터 퇴출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축출과 사회적 배제의 차이점은 사회적 배제가 체제 내부에서 발생해서 완화나 개선이 가능하다면, 축출은 체제 변동에서 발생하여 이는 그 대상이 이미 퇴출되었거나 퇴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축출은 개인이나 회사, 정부의 행동이나 결정이 단독으로 도출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악랄적 구조를 형성한 것이며, 경제적 성장을 지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무작정 배제하고 주류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축출의 개념을 공간으로 확장한 '축출공간'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도시계획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기 위해 향후 축출공간이 개념적으로 확립될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다.

8월 26일에는 서영표의 '런던 코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급진적인 지방사회주의가 시도되었던 런던 광역시의회(Greater London Council, GLC)에 대한 사례 분석과 역사적·이론적 논의를 담고 있다. 책에서 언급한 저항과 투쟁을 도시에서 일어나는 저항운동에 대입해 보고, 참여민주주의의 실험을 참여적 도시계획으로 치환하여 논의하였다. 이 책은 카스텔의 도시사회학과 하비의 도시 정치경제의 지리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모순으로 가득 찬 도시생활을 탐구한다. 저자는 카스텔의 언급을 인용하여, 도시는 역사성과 시간성을 지닌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 요인들을 포함한 복잡한 사회구조로 이해하였다. 또한 도시의 저항을 설명하기 위해 카스텔의 집합적 소비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의 투쟁이 노동자 계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대중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 대립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결국 국가의 개입이 저항의 정치화를 촉발하는 것이다. 사회적 투쟁의 장소로서 도시의 모습에 대해 토론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3) 토지주택정책 특강 1. 주택연구에서 내생성을 통제하기

2016년 10월 31일 환경대학원 305호에서는 토지주택정책 특강 겸 한국주택학회 제8회 HUG Brownbag Seminar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한국주택학회에서 주택관련 분야 대학이 있는 학교를 방문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소개하는 특강으로, 주택분야 연구의 활성화와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월 1회 열리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학회의 연구특별위원회가 주최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후원하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주택연구에서 내생성을 통제하기-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의 한계와 대안"으로,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의 사회, 국토연구원 이성원 박사의 발제로 이루어 졌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주택 및 도시 관련 학회지의 주택 연구동향을 소개하며, 회귀분석에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Quasi-Experimental Approaches를 설명하며 강연을 마쳤다.



4) 토지주택정책 특강 2. The Just City



2016년 12월 12일 환경대학원 글로벌홀에서 하버드대학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인 Susan Fainstein 초청 강연이 열렸다. Fainstein 교수는 이번 특강 주제와 같은 「The Just City」라는 제목의 저서 외에도 「The City Builders, Readings in Planning Theory」 등 도시계획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책들을 여럿 집필한 바 있다.

이날 초청 강연에는 토지주택정책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외에도 환경대학원의 여러 교수님들, 재학생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하여 큰 기대를 모았다. 특강은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Fainstein 교수는 특강에서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원칙으로 Democracy, Diversity, Equity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Fainstein 교수는 청중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2.4 교통학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제25회 교통연구세미나

2016년 9월 2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제25회 교통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도입과 미래교통상 전망에 대한 토론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제24회 교통연구세미나에서 다루었던 자율주행 자동차 토론보다 더욱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1부에서는 P&C홀에서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의 연구과제와 개인논문을 총 8편의 포스터로 게시하여 발표하였다. 2부에서는 임영태 동문(교통 89,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자율주행 도입 이슈에 대한 팀 별 주제 토론이 진행되었다. 네 개의 팀은 각각 자율주행과 통행행태 변화(부제: 대혼잡시대의 서막인가?), 자율주행과 환경(부제: 자율주행은 기후변화 적응전략이 될 수 있는가?), 자율주행과 안전(부제: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하다.), 자율주행과 법제도(부제: 자율주행을 선도·보완할 정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하여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교통 전문가로서의 열정을 보여주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포스터 발표와 주제토론이 마무리 된 후, 우수논문과 우수토론자(팀)가 선정되어 시상식이 이어졌다. 우수연구 포스터에는 '회전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및 포화도 산정 연구'를 발표한 이진수 석사과정생, 우수과제 포스터에는 '차량 통행경로자료 분석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조사분석 연구'를 발표한 강태석 박사과정생이 선정되었다. 우수토론자(팀)에는 '자율주행과 안전' 토론을 발제한 3팀(박사과정 김상준, 심형욱, 석사과정 박정웅, 성민경, 오혜림)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2) 제39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화물자동차 및 일반차량의 통행시간 신뢰성 모니터링 및 평가: 미국 MAP-21과 NPMRD사례를 중심으로

2016년 10월 1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화물자동차 및 일반차량의 통행시간 신뢰성 모니터링 및 평가: 미국 MAP-21과 NPMRD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9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발표, 토론, 진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상기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인택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수는 교수가 각각 참석하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고속도로, 고속도로 안전사업, 대중교통사업 등 교통사업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MAP-21) 법을 제정하였다. MAP-21에 따라 MPO와 주정부는 2년마다 연방정부에 교통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올 2월부터는 단순히 교통사업의 준공 여부뿐만이 아니라 교통시설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사업의 성과기반 측정(performance-based measure)이 요구되고 교통부문의 통행시간 신뢰성을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동안 MPO와 주정부는 교통사업의 결과로 포장물, 도로연장 등을 측정하였으나, 이제는 목표지점을 지정한 후 주도로가 연방정부가 원하는 통행분포를 유도하는가와 같은 성과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도로 투자의 결과로서 미래에 도로 통행시간 신뢰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측정 단위가 필요하고, 출발시간(departure time)의 설정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출발시간이 안제인가에 따라 도착시간(arrival time)의 분포, 속도 분포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통행시간을 예측할 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년, 월, 일, 날씨, 사고, 길어깨 추가 등)의 조합이 가지는 가능성을 예측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MPO와 주정부는 각 지역의 교통사업에 따른 신뢰도에 대해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국가성과관리 연구데이터(NPMRDs: N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Data Set)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미 전역에 걸쳐있는 도로는 5분 단위 링크로 분할(TMC)되고 각 방향과 링크에 따라 고유번호로 식별된다. INRIX, Here, TomTom과 같은 통행관련 데이터 제공업체들은 TMC를 정보제공 기반으로 사용하여 통행정보를 수집하고 MPO와 주정부에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3) 제40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Transportation Innovation : Historical view - What is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 globalization?

2016년 10월 1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Transportation Innovation: Historical view - What is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 globalization?" 라는 주제로 제 40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홍석진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하였고, 장수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본 콜로키움은 BK21 기후변화적응전략연구사업팀의 지원으로 개최되었다.

홍석진 교수는 토마스 프리드먼의 저서 "The world is flat"을 인용하여 세계를 평평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11/9/89" 즉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날이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면서 동서독을 가로 막았던 교역로가 열렸고 그 결과 유럽 사회는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Supply-chaining"이다. 이전까지 로지스틱이라고 부르던 물류 운송이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조화롭게 협업을 하면서 가치를 창조함에 따라 "Supply-chaining"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RFID 배송 단계 추적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세계는 교통시스템을 통해 하나로 연결됨에 따라 평평해지고 있다.

홍석진 교수는 교통이 세계화에 가지고 오는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일례로 징기스칸 부대는 기마병을 이끌고 매일 150마일씩 전진했고 일부 귀족들만 말을 이용하여 이동했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되지 않는 전력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샤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복에서 착안하여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체인백에 영감을 얻었다. 그 당시 클라치 백을 들고 다니던 여성들은 체인백의 등장으로 이동의 편리함을 얻었고 그 결과 더욱 자유로운 삶이라는 혁신을 얻었다. 인상파는 어떠한가? 실내에서 고정된 피사체만 그리던 화가들은 19세기 후반 실외로 나서서 화폭에 담을 대상을 찾았다. 그들이 화폭에 담은 역동적인 철도 역사,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움직임은 오늘 날 우리에게 위대한 인상파라는 혁신적 예술작품들을 남겨주었다. 교통시스템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공간에 어떻게 혁신을 가져오는지는 분명하다. 지역의 세계화를 원한다면 교통시스템을 통한 교류와 그에 기반을 둔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 도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회의

11월 25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단독주택지구 가로망 계획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업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지구 가로망이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기보다는 차량 통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다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신규 단독주택지구를 대상으로 가로망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실제 우리나라 보행환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추가로 필요한 연구에 대해 조언하였다.



2.5 환경관리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서울환경포럼 추계 학술세미나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103호 대형강의실에서 서울환경포럼(회장 조경두, 환경 86,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년 추계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서울환경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 전공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환경 분야의 통합적 학술모임으로서 학술교류 증진,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시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관심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전공 주임교수인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와 서울환경포럼 조경두 회장을 포함한 총 50여 명의 환경관리 전공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이 날 포럼은 총 세 건의 주제 발표와 회원들의 사전 질문을 활용한 오픈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재경 동문(환경 03,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정현 동문(환경 89, 건국대학교 교수), 그리고 배현주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가 각각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제도 개선방안', '대기 중 미세먼지 현황, 예측과 관리',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와 건강편익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지정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포럼의 형식에서 벗어나 김동영 동문(환경 90,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사전에 회원 및 포럼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받아 추려진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자와 참석자가 자유롭게 질문 및 답변을 하는 오픈형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오픈형 질의응답과 토론은 뜨거운 열기 속에 예정된 포럼 시간을 넘겨 3시간 이상 진행된 후에 마무리 되었다. 포럼을 마친 후 환경관리 동문 및 재학생은 연이어 진행된 환경대학원 동문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환경포럼 주관한 2016 환경대학원 홈커밍데이 행사와 함께 개최되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회원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2) 생지화학연구실 2016 집담회

생지화학연구실(오농한 교수, 환경계획학과)에서 개최한 집담회는 2016년 11월 18일 오후 4시부터 3부로 나눠져 82동 308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집담회는 "생태계의 시공간적 변화와 원인 추적"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범철 교수,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지형 교수, 그리고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 융합학과 허진 교수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김범철 교수는 "소양호 수질과 생태계의 장기 변동"이라는 주제로, 30년 이상 축적된 소양호 자료를 제시하며 인간의 활동이 소양호 수질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주었다. 또한 박지형 교수는 "유역 환경 변화와 하천 온실기체 배출"이라는 주제로, 메콩강 유역과 한국의 밤섬 주변의 이산화탄소 농도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탄소 순환에서 아시아 하천이 가지는 중요성과 온실기체 배출 요인을 추정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허진 교수는 "분자량에 따른 용존 유기물질 금속 결합특성 분포 조사를 위한 새로운 분석법 제안: 2D-CoSEC"이라는 주제로, 휴믹 물질이 분자량별로 중금속과 다른 흡착 특성을 보이며 이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뿐만 아니라, 생태계 내의 휴믹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집담회를 통해서 장기간 축적된 생태계 데이터의 중요성과 새로운 분석 기법, 지구 온난화와 인간의 활동에 따른 새로운 탄소 순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20여 명의 참석자들이 각 주제에서 얻었던 내용에 대한 토론을 공유한 뒤 성공리에 집담회를 마무리하였다.

2.6 도시·환경·교통 융복합 전공 행사/학술/연구

도시·환경·교통 융복합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사들을 초청하여 융복합연구 공개집담회를 개최한다. 2016년 2학기에도 총 네 차례의 집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는 환경계획학과 김태형 교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강연 후 토론을 진행하였다.

1) 정책 변동의 질적 분석방법과 사례(뉴타운정책과 지역개발정책)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영단 선임전문위원을 초청하여 정책 변동의 질적 분석 방법과 사례에 대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집담회에서 김영단 박사는 뉴타운 정책 변동의 유형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대하여 정책적 특성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정책리더)이라는 정책행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설명했다. 김영단 박사는 뉴타운 정책 변동이 정책혁신, 정책유지, 비선형승계(정책전환)라는 3단계 과정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뉴타운 정책 변동에 있어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리더의 행위자적 특성(신념-도시철학, 정치적 목적-이해관계, 추진방식)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고 설명하였다.

2) 부동산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2016년 9월 21일에는 아시아신탁 김재희 차장을 초청하여 "부동산 시장의 금융과 전망"이라는 주제 강연과 토론을 가졌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 김재희 차장의 강연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개념들과 시사성 있는 이슈를 제시하며 활발한 토의의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주를 이루었던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들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ABS, ABCP, REITs, MBS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특히 최근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리츠(REITs)는 부동산을 관리 및 임대하는 자산운용회사와 개인, 법인, 연기금 등의 투자자 사이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평가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와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리츠를 활용한 개발 사례로 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 방식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선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공급 후 매각하여 청산하는 민간 제안 임대 리츠 사업 방식이 소개되었다. 또한 기존의 투자방식과는 다르게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으며, 관련 사례가 간결하게 제시되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졌던 의문에 대해 실무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보다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의가 빛나는 세미나였다.

3) 도시계획에서 융복합적 생각과 수단이 꼭 필요한가?

2016년 9월 27일에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조준혁 차장을 초청하여 폐정수장에서 특수효과 활용장으로 탈바꿈한 고양 아쿠아스튜디오의 사례를 토대로 도시계획에서 융복합적 생각과 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고양 아쿠아스튜디오는 현대 도시에서 융복합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며, 이것이 일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어떻게 실마리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융복합적 사고방식이 낳은 성공적인 사례이다. 폐정수장을 또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지 않기로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으며, 이는 fast follower가 아닌 pathfinder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준혁 박사는 문제를 분리시켜 따로 보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창조에 대한 시도로서 융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전례없는 도시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반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과거의 기술을 없애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날 도시가 처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다다르는 design thinking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융복합을 정의한 조준혁 박사는 고양 아쿠아스튜디오라는 생생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이번 특강을 통해 '도시는 어떻게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고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4) Neighborhood Planning Theory, Guidelines, and Research

2016년 12월 9일에는 Auburn University의 박윤미 교수를 초청하여 Neighborhood Hierarchy를 주제로, 도시계획에서 마을(neighbourhood)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동체(community)는 사람, 장소와 응집력에 관한 유형의 개념으로서 공동체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지리적인 범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마을의 경계가 없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국에는 행정구역체계 상에 '동'이라는 범위가 정의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 커뮤니티 만들기 사례는 이 행정동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인지하는 마을의 크기는 실제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적인 도구를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주어진 범위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한 마을의 크기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기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다는 것이 그 까닭이다. 이어서 박윤미 교수는 공동체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사람들과 응집력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으나, 지리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국의 법정·행정구역체계의 틀을 벗어난 Neighborhood Hierarchy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분석 단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으로 강연이 마무리되었다.

1) 환경조경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하계 워크샵

지난 7월 18-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환경조경학과 하계워크샵을 다녀왔다. 매년 전통적으로 겨울에 진행해오던 학과 워크샵을 이번 학기에는 여름에 진행했으며, 예년 워크샵과 같이 신입생(2016년도 2학기)도 함께하여 선배, 교수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샵은 태안해안국립공원과 두웅습지, 천리포수목원, 해미읍성, 수덕사를 답사했으며, 환경조경학과 교수 및 조교,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총 40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 천리포수목원과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는 '관·학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여 천리포수목원과 환경대학원이 MOU를 맺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2) 조경·도시설계 전공 융복합세미나

지난 9월 24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글로벌홀에서는 조경·도시설계 전공 동창회(전공 대표 안계동, 조경 79, 동심원 조경설계연구소 소장)의 융복합세미나가 있었다. 조경·도시설계 전공 융복합세미나는 조경·도시설계 전공 동창회가 홈커밍데이를 주관했던 2014년 이후 올해 3번째 개최된 행사로, 매년 행사를 재경비해가며 조금씩 그 규모와 내용을 알차게 키워가고 있다.

이번 융복합세미나는 올해 있었던 「노들섬 공간시설조성 설계공모」를 주제로 환경조경학과 손용훈 학과장, 안계동 회장을 포함한 여러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참여 속에 개최되었다. 이 날 세미나는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윤상준 동문(조경 97, 이화원정원문화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안계동 회장의 환영사와 손용훈 학과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번 설계공모 1등 당선자인 MMK+P 맹필수 소장의 '재구성된 땅, 노들마을과 가작인 이호영 동문(조경 02, HLD 대표)의 noduel (un)-plugged,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은 동심원의 Nodeul Village,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서예례 교수 도시지형연구실팀(나준수, 이지우, 박지혜)의 Cultivating Terrain의 설계안 발표가 있었다.

잠시 휴식 후 2부에서는 지정 및 방청객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경전 교수(환경조경학과)를 좌장으로 홍경구 동문(조경 97,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박은영 동문(조경 석 94·박이, 중부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이유미 교수(서울대 환경조경학과), 유나경 동문(조경 95, PMA 엔지니어링 소장), 장경철 동문(조경 석98·박이, 도시디자인 공장 대표), 권혁수 동문(조경 박사06, 국립생태원)을 지정토론자로 하여 동문, 교수님, 재학생들과 열띤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미나 종료 후에는 조경·도시설계 전공 동창회의 총회도 개최되어 동창회 운영에 대해 다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동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맹필수 소장님과 동심원의 박경탁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3) 'Walking the Tightrope' 특강 개최

지난 10월 13일 환경대학원 405호에서는 'Walking the Tightrope : A History of UK Garden Design in Modern Management'라는 주제로 Raoul Curtis-Machin(The Horticultural Trades Association의 Head of Horticulture)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의 주치로 열렸으며 영국 정원 디자인의 역사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Raoul은 영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원과 원예의 종주국이고, 세계 최대이자 최상의 정원과 식물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화훼 박람회를 주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다음으로 17세기와 18세기 부유층 신사들이 국제무역을 통해 형성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들을 접하기 위해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그랜드 투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영국의 New Bield, Hardwick Hall, Kinross House, Castle Howard, Stourhead, The Heritage, Ickworth, Castle Drummond, Royal Botanic Gardes Kew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다양한 식물 컬렉션을 보유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준 식물사냥꾼(Plant hunters)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왕립원예학회 주최의 첼시 화훼 박람회를 소개하면서 영국 외 다른 국가들도 각각의 정원과 관광 산업을 증진하기 위해 박람회에 전시품을 출품하고 있는 현대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4) 'Expo Landscape'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난 11월4일 환경대학원 205호에서는 환경조경학과 Wybe Kuitert 교수가 주최한 'Expo Landscape'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내외 엑스포 관련 연구자 10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Expo landscape and history research'와 'Expo landscape as communication tool'이라는 두 개의 대 주제 하에서 각 참석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오전 세션에서는 Wybe Kuitert 교수의 기조발표인 "Expo Landscape: where are we going?"에 이어 "Expo as a commercial trade fair: global art history of paper and leather craft (Ikai Atsuko)", "Struggle of a non European country in the World Fairs: the case of Japan (Teramoto Noriko)", "Expo in China in historical perspective (하세봉)"의 주제발표가 이어졌고, 오후 세션에서는 "Long-term trend of industrial displays, awards & pavilions: Expos as an arena of exchanging messages (Ichikawa Fumihiko)", "Work on the Expo 2012 Yeosu (정순영)", "Spectacle and Placeness (전유창)", "Visual Materials of the Chosen Expo (Ishikawa Atsuko)"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후에는 Wybe 교수의 사회로 지정토론자(Sano Mayuko, 육용수, 이민식)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민식 명예교수는 엑스포의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에 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함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엑스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학회 다음날인 11월 5일에는 구 서울시청(현 서울도서관)과 경복궁 답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Expo Landscape 학회의 초대된 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Sano Mayuko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Teramoto Noriko (아토미 대학)

Ichikawa Fumihiko (간세이가쿠인 대학)

Ishikawa Atsuko (Nomura Kougei Co.Ltd.)

Ikai Atsuko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도쿄대학)

육용수 (중앙대학교)

이민식 (대림대학교 명예교수)

전유창 (아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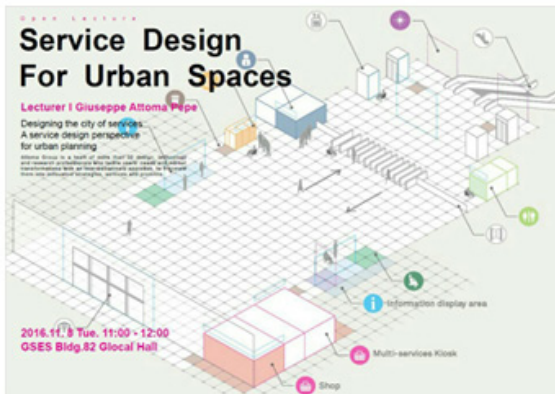
정순영 (Place Lab Inc.)

하세봉 (한국해양대학교)



5) 'Service Design for Urban Spaces' 특강 개최

지난 11월 8일 환경대학원 글로벌홀에서는 'Service Design for Urban Spaces'라는 주제로 Attoma Group의 Giuseppe Attoma Pepe 대표의 특강이 있었다. 이번 특강은 환경조경학과 이우미 교수의 주최로 열렸다. Giuseppe Attoma Pepe 대표는 이용자가 도시시스템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고, 이용자의 행동 분석과 도시 공간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적용에 대해 강의하였다. 그리고 참석자들과 함께 이용자들의 공간에서 이용자의 행태분석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 인도네시아 디포네그로대학 건축학과 방문

지난 7월 26-27일에는 인도네시아 디포네그로대학 건축학과 교수진 4명과 학생 40여 명이 환경대학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의 주최로 학생 교류와 특강, 서울답사로 이루어졌다. Ateik Suprapti 교수는 인도네시아 세마랑의 특징적인 주거 형식인 캄퐁 카우만이 어떻게 경제적-종교적-지역적 공동체로 자리를 잡았고 오늘날까지 그 생명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설명했다. 이후 김세훈 교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서촌, 서울시청, 청계천 지역을 답사하며 서울의 도시공간 형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청에서는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생이자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있는 양희진 연구원이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 2016학년도 2학기 환경조경학과 과제전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11시부터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는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이 이번 학기동안 수업에서 진행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과제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과제전에서는 정원설계(지도교수 이유미), 조경공간시스템스튜디오(지도교수 W. Kuitert) 단지설계(지도교수 서예례), 도시설계스튜디오2(도시설계협동과정, 지도교수 김세훈) 4개의 스튜디오 수업과, 도시공원 계획과 관리(지도교수 조경진), 조경세미나(지도교수 이유미), 환경설계와 디지털 미디어(지도교수 서예례), 환경생태계획(지도교수 송영근) 4개의 이론 수업 결과물들, 총 37개의 결과물이 전시되었다. 특히 저번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실무에 계신 동문선배님들이 참여하여 우수설계 크리틱을 진행했으며, 최우수상에는 도시설계협동과정의 박영준(University X City), 우수상으로는 환경조경학과 신혜인의 Garden of Music, 환경조경학과 노승민과, 도시설계협동과정 정지원의 Playground for Student가 선정되어 30만원, 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안계동 동문회장(석사79, 동심원 대표)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번 심사에는 동심원의 안계동 대표(석사79), 한경대 안승홍 교수(석사94, 박사00) 우리엔디자인펌의 정인경 소장(석사97), 이화원의 윤상준 소장(석사97),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연진 연구위원(석사1, 박사03), HLD 이호영 대표(석사02), 중앙대 배웅규 교수(석사91, 박사97), 서울연구원의 임희지 연구위원(석사92, 박사98), 아키펠랜의 진린 소장(석사95), PMA엔지니어링의 유형식 대표(석사94), 건축도시연구소 김영현 팀장(석사00) 동문들이 참석하여 주었다.



1) 국제학술활동

- **환경관리 전공 이은주(석사과정)와 오능한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2월 12-18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제49회 American Geophysical Union Fall Meeting에서 "Dynamics of Stream Carbon Species in a Small Forested Watershed under Asian Monsoon Climates"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2-2015년 동안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산림소하천을 통해 빠져나가는 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탄소 동위원소와 형광특성 분석을 이용하여 하천 유기탄소의 성질에 대해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환경관리 전공 이승철(석사과정)과 오능한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2월 12-18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제49회 American Geophysical Union Fall Meeting에서 "The Role of Hydrology on Stream Carbon Species across a Forest-Urban Landscape Gradient"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름철 강우 전과 후, 산림지역의 상류하천부터 도심지역의 하류하천까지 토지이용의 차이에 따른 하천 탄소 농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환경관리 전공 차지연(석사과정)과 오능한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2월 12-18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제49회 American Geophysical Union Fall Meeting에서 "The Effects of Tree Species on Soil Organic Carbon Content and Distribution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NOVA, GLM 등 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 유기탄소의 양과 분포에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환경관리 전공 스후페엘레나(석사과정)와 홍중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8월 8일 일본 규슈산업대학에 열린 The Sixth Congress of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EAARE)에서 "Comparison of Feed-in-Tariff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y Cost for Small-Scale Solar Developers under Cost Uncertainties" 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용 불확실성하에 소규모 태양광의 기준가격지원제도와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정책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환경관리 전공 조유리(박사과정), 배소연 박사(국립생태원),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에 "Effects of vegetation structure and human impact on understory honey plant richness: implications for pollinator visitation"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확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양강 유역 산림의 하층부 식생 다양성을 조사하고 이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꿀벌을 대표로 하는 산림의 수분매개충 방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송지혜(박사과정)와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저널 2016년 11월 Volumes 569-570, Pages 690-699에 "Development of a multimedia model (POPsLTEA) to assess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on the fate and transport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East Asia"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정상상태 다매체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동아시아 지역 다매체 환경에서 Benzo[a]pyrene의 오염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여주었다.
- **협동과정 조경학 원세형(박사수료), 조시은(박사수료)**은 2016년 12월 2~3일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제경관생태공학회(CLEE: International Consortium of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학술발표에서 각각 "The mobility effects of new road development on residents' lifestyle and the use of private and public spaces: A comparison of travel pattern between migrants and original residents in Da Nang, Vietnam"과 "Social mix and housing diversity of Songjiang new town, Shanghai"라는 주제로 각각 베트남과 중국 도시에 대하여 진행 중인 연구내용을 포스터 발표했다.
- **협동과정 조경학 윤예화(박사과정), 성중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10월 11~14일까지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제4회 Openspace Peoplespace Conference에서 "A Qualitative GIS Analysis of Mapping the Elderly's Outdoor Activity in the Neighbourhood Environment"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서울시 저소득 노인밀집지역의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맵핑(행태관찰지도, 인지지도 및 GPS추적지도)과 심층인터뷰를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인의 근린환경 내 옥외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김준현, 조한솔, 김지나, 고하정, 윤예화**는 2016년 12월 15~17일 홍콩에서 열린 제10회 Conference of the Pacific Rim Community Design Network에서 "Neighborhood's Place Attachment to an Old Apartment Complex"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재개발을 앞둔 반포 1단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식물 및 녹지에 대한 경험과 아파트단지에 대한 장소애착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Han Yiwen(박사수료), Li Ying-nan(박사수료), 박해경(박사과정)과 환경조경학과 최희준(석사과정), 손희정(석사과정)**은 2016년 12월 2~3일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제경관생태공학회(CLEE: International Consortium of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학술발표회에서 각각 "The process of Slums Formation in a Metropolitan Fringe based on Land-Cover/Use change dynamics detection: A case study of Guryong area, Seoul, Korea" 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Han Yiwen), "Evaluating the Effect of Greening on Microclimate and Thermal Comfort in Myoung-dong Based on ENVI-met"(Li Ying-nan), "Study on the Mapping Method of the Assessment Result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박해경), "Time Series Analysis of Natural Park Growth Using Lidar Data"(최희준), "Review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sustainability of urban green spaces- Focusing on URBlO Index"(손희정) 라는 주제로 poster 발표를 했다.
- **협동과정 조경학 심주영(박사수료), 김지나(박사과정), 환경조경학과 이인제(석사과정), 박상아(석사과정), 조경진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12월 15~17일 홍콩에서 열린 제 10회 Conference of the Pacific Rim Community Design Network에서 "Socio-Ecological Rehabilitation of the Military Site: Maehyang-ri Park in South", "Community Based Tourism to a Village of Migratory Birds, Cheorwon", "Emerging New Approach of Neighborhood Regeneration in Korean Urban Communities: The case of Nangok Residential Neighborhood"라는 주제로 논문 3편을 발표했다.
- **환경조경학과 강지아(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12월 2~3일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제경관생태공학회(CLEE: International Consortium of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학술발표회에서 "Characteristics of oak wilt disease distribution as a disturbance factor of urban forest ecosystem"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우면산의 생태계 교란 요인으로서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목(참나무류)을 대상으로 실측조사를 하여 확산 분포되는 양상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면산을 대상으로 조사된 참나무시들음병의 현황자료를 통해 분포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 등산로부터의 거리 별로 두드러지는 감염의 차이를 보여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예측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박이랑(석사과정),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10월 11~14일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제4회 Openspace Peoplespace Confernece에서 "A study of diagnosis and improvement for aging-friendly environment"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의 보행보조차 이용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이용하는 근린환경을 추적하여 경로와 휴식지점의 공간을 분석한 후 활동적 노년의 관점에서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조시은(박사수료), 원세형(박사수료),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BK21 Plus 사업의 지원 하에 SCI급 국제저널 Sustainability 2016년 Vol.8호에 "Living in harmony with disaster: Exploring volcanic hazard vulnerability in Indonesia" 주제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 설계적 대응과 커뮤니티의 적응 양상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다루었다.

2) 국내학술활동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공해림(석사과정)과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0월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불투수면 비율 변화"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행정동을 대상으로 토지이용특성에 따라 불투수면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영재(석사과정)와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0월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부주도 산업단지의 형성과 변천"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마산과 창원지역의 산업단지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산업단지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승화(석사과정)와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0월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중국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행위로 인해 경제적용주택이 감소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토지재정과 분양 및 경제적용주택 3자 간의 경로분석을 통해 그 인과관계를 보여주었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기현(석사과정)과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0월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자본이득의 사회적 환원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이익의 개념적 스펙트럼과 환수의 기본원리 및 제도적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영국의 제도적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대진(박사과정)**은 2016년 12월 2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16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의 탐색과 과제 - 서울시를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의 주거취약계층이 누구인지 탐색하고 현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그간에 주거복지정책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서울의 주거취약가구를 조명함으로써 앞으로의 주거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윤윤정(박사과정 수료)**는 11월 5일 공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6 한국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식음료 점포의 건물전면공간 기능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한국의 새로운 도시일상 공간으로 등장한 가로변 점포의 개방 및 투명한 건물전면공간의 물리적 변화 양상을 사회적 변화와 함께 한국 도시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민재(박사과정)와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제32권 2호에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디지털화의 편익추정"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299,688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의 편익을 추정함에 있어,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고유가치, 유산가치, 직·간접 이용가치, 군사적·전략적 가치, 통일 기반 조성 등이 있으며, 통일 이후의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가계(家系) 확인, 지번 부여와 지적관리 업무의 토대 조성, 도시계획적 활용 등이 있다. 실제 추정에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이중양분선택법을 사용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기명성(석사졸업)과 김민재(박사과정),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 39권 3호에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서비스의 지불용의액 추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농촌 지역에서 적자를 보는 버스 노선이 증가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의 편익만큼을 이용자가 비용으로 지불하고, 그 비용과 시장에서 형성된 실제 이용료의 차이를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격체계를 구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의 편익을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이중양분선택법을 사용해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민재(박사과정)와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51권 5호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역혁신전략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역혁신 전략과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는 '공유·소통·협업·융합·창조'를 통한 지역의 창조사회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내용으로는, 지역혁신의 성공적인 확산과 구축을 위해서는 觀소프트웨어 문화가 지역의 저변에 뿌리내려야 하며, 지역과 지역산업의 환경과 현황에 맞는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인 기술과 콘텐츠 개발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거버넌스 체계와 법제도의 정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안은경(박사과정)과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지적과 국토정보 제46권 제2호에 "국토정보를 활용한 빈곤·취약지구 추출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빈곤·취약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지표들을 선정하고 그 지표들의 작동성을 검토하여, 위계적인 공간 영역에 따라 지표들의 활용이 조정 가능한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빈곤·취약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지표들을 빈곤층, 노후불량주택, 근린불량주거환경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대표 지표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정보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양원탁**(박사과정)과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9권 제2호에 “수도권 비도시지역으로의 개별입지 제조업체 유입 실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 비도시 지역에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개별입지 제조업체들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살펴본 후, 개별입지 제조업체들의 유입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적 차원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무분별한 공장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시 장안면을 대상으로 제조업체 유입의 문제와 농촌마을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체의 90% 이상은 서울과 인접한 특정 사군에 군집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체들의 특성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수행한 결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무분별하게 입지한 제조업체로 인해 농촌마을의 토지이용, 환경오염, 마을 공동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민재**(박사과정)와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지 10월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지역 확산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원고를 게재하였다. 해당 특집 원고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역혁신전략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미래유망산업기술과 지역별 소프트웨어 특화산업을 제안하고 있다.
- **교통학 전공 김한중**(박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대한교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퍼지논리를 이용한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서울시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COSMOS)의 포화도 선정 알고리즘을 퍼지논리로 선정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신호시간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COSMOS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혼잡 완화 효과가 약 10-12%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학 전공 Ahmad Tufail**(박사과정)과 **장수은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0월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Travel mode choice by age and income groups in Indian Metropolitan cities”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인도 대도시의 교통수단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수입과 연령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 **교통학 전공 김민주**(석사과정)와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0월 27일, 28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ITS 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이용한 심야버스 노선 선정의 적정성 - 강남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심야시간 통행량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심야버스 노선과 비교하여 KT통신사에서 심야통화량을 기준으로 선정한 심야버스 노선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기존 영향권을 지하철역으로 잡고, 지하철역과 인접한 행정을 영향권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점이 이 연구의 특이점이다.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과정)과 **김태형교수**(환경계획학과)는 SH공사 도시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주택도시연구에 “수도권 내 공공주택 도입을 위한 거주지역 입지환경 및 주거시설 특성 분석: 서울시와 경기도를 사례로”라는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2016, vol.6, no.1, 통권 11호). 이는 주민들이 주택입주시 지역별로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상이한 만큼 거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입지특성 및 시설특성에 대한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과정)과 **김태형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철도학회의 정기간행물인 한국철도학회논문집에 “지하철 역사 내 임대시설 적정 면적 및 임대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서울 지하철 5호선, 6호선을 사례로”라는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2016, vol.19, no.3, 통권 94호). 이는 지하철 역사내의 적정 임대시설면적 및 임대료는 지상의 임대시설물의 특성과는 상이한 만큼 이를 감안한 적정면적 및 임대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과정)과 **김태형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교통연구에 “관광통행 시 승용차 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2016, vol.23, no.2, 통권 61호). 이는 관광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광목적 통행은 승용차의 비중이 높은 만큼 승용차 이용 특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전략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과정)과 **김태형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교통연구에 “사회적 비용 중심의 세제혜택을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 및 경차의 이용률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2016, vol.23, no.3, 통권 62호). 이는 온실효과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이며, 승용차의 부피가 커짐에 따라 주차 면적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과정)과 **김태형교수**(환경계획학과)는 서울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서울도시연구에 “통근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변수 분석: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2006~2014)”라는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2016, vol.17, no.3). 이는 통근시간과 관련된 과년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개인특성 및 지역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근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교통학 전공 박정웅**(석사과정)과 **장수은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51권 제4호에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계획요소의 중요도 평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고찰하고 복합환승센터의 3가지 유형(국가기간, 광역, 일반)별 어떠한 요소가 더 중요한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하여 분석한다. AHP는 교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각 전문가 그룹이 중요시하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전은정**(석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8월 26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2016년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메콩강 하류국가 캄보디아의 수력발전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메콩강에서 이루어지는 수력발전 행위에 대한 캄보디아의 입장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환경관리 전공 류주현**(석사과정)과 **최종민**(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9월 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 구미시-한국환경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담론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내의 ABS관련 대표 행위자들의 대표 텍스트를 바탕으로 나고야의정서 채택 전후 각 행위자들의 담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김우창**(석사과정)은 2016년 9월 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 구미시-한국환경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형식적인 참여와 강요된 합의: 환경 불의의 관점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 분석하기"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했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 불의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김우창**(석사과정)은 2016년 10월 21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환경사회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형식적인 참여와 강요된 합의: 환경 불의의 관점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 분석하기"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했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 불의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신동혁**(석사과정)과 **여기봉**(석사과정)은 2016년 10월 21일 서울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환경사회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 피해사건 관련 뉴스프레임의 변화, 2011-2016년 4대 일간지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일간지 4개(보수/진보 각각 1개, 경제지 2개)를 선정하여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 피해사건을 다루는 기사의 프레임 유형, 유형의 빈도수, 프레임 변화양태를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강소연, 최종민, 윤보은**(박사과정) **소윤미, 김지연**(석사과정)은 2016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적정기술학회-GSDV 공동 국제 심포지엄 2016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역의 필요에 기반한 학생사회공헌활동: Project EcoNut"이라는 제목으로 사례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현지 농민협동조합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했던 학생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고 적정기술 개발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주민의 소득을 증진시킨 효과를 보여주었다.
- **환경관리 전공 송합**(박사과정), **윤보은**(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2월 2일 제주도기후변화학회에서 열린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국과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녹색기후기술 중 태양전지와 바이오에너지 관련 중국과 미국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강소연**(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에서 "자바 해의 독수리는 자카르타를 지킬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의 잘못된 기후변화 적응의 가능성과 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목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대 방조제 건설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잘못된 기후변화적응의 특징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 **환경관리 전공 최종민**(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을 통해 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발생한 관계 기관의 부적합한 사고 대응을 오히려 백의 조직화된 무책임을 이론적인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안승혁**(박사과정)은 2016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에서 "IPCC 보고서를 인용한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IPCC 보고서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논문들의 공저자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특히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자 네트워크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와 **환경관리 전공 박종문**(박사과정)은 2016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학회대회에서 "공간성을 통해 본 에너지 전환 운동의 확산양상: 서울시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 과정에서 활용되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성과 주민 지도자의 리더십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윤보은**(박사과정)과 **손민지**(석사과정)은, 2016년 9월 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 구미시-한국환경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영향심사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영향심사 제도 및 운영절차를 분석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제도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윤보은**(박사과정)과 **손민지**(석사과정)은, 2016년 10월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ation of Natural Capital Asset Check in Urban Green Spaces of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의 녹지공간을 자연자산평가(Natural Capital Asset Check, NCAC) 방법론을 준용하여 도시녹지 공간의 현황, 기능, 자산 가치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문미라**(박사수료)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제24권 3호에 "한국 제조업의 환경혁신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게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유인 정책수단들 중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김지태**(박사과정)는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제 24권 2호에 "배출권 시장안정화 정책수립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논문게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손원익**(박사과정)은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제 24권 4호에 "공편익을 고려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논문게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정책의 연계관점에서 공편익(co-benefit)의 개념을 개발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공편익을 반영한 인증방법론의 검토를 통해 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편익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정수지**(석사과정)와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도시설계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조직 설계를 통한 산본신도시 재편 방안"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과거 차량 위주로 설계되었던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편방안으로서 대상지인 산본신도시를 보행도시로 전환하는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박성은**(석사과정)과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도시설계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동빈내항·포항운하 설계를 통한 원도심 재정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쇠퇴해 가는 포항 원도심의 수공간(동빈내항, 포항운하)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구조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윤지호**(석사과정)와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도시설계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지구단위 계획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서울 종로구 관철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종로구 관철동의 다양한 건축활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에 가지는 함의와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백초롱**(석사과정)과 **도시협동과정 Pei El Sin**(석사과정)은 2016년 10월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창원광장 회전교차로 교통섬 주변의 공공 공간 활용방안 제안"과 "Proposal of A Neighbourhood Unit Model Towards The Newtown Design of Kuwait"라는 주제로 각각 한국 창원시와 쿠웨이트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 **환경조경학과 박성경**(석사과정)은 2016년 12월 3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도시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생태하천을 위한 체계적 복원 연구"라는 주제로 체계천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 **환경조경학과 임정우**(석사과정)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한국 농촌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농업유산으로서의 제주 발달의 향후보전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발달 농업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특정 대상지(구좌읍 월정리) 일대를 선정하여 향후 농업유산으로의 보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김지나**(박사과정)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2호에 "도시장소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분석: 서울 청계천을 사례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들에 대한 보존과 재생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도심 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지향점을 모색하는 데 새로운 과점을 제시하고자 '진정성' 개념을 도입하여 청계천을 사례로 특정 도시장소가 보존 및 재생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조한솔**(박사과정)과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조경학회지 제177권 6호에 "도시공원에서 스케이트 보딩 활동 공간 발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한다. 해당 논문은 도시공원에서 스포츠 활동 중 하나인 스케이트보드 활동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는지를 신문기사 담론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시기별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도시공원에서 스케이트 보딩 공간 생성 혹은 소멸로 이어졌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현 도시공원의 체재에서 동적 행태를 수용하는 동안 나타나는 상황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스포츠를 공원에 계획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고 해볼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9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내용

대한교통학회 제75회 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수상

교통학 전공 이진수(석사과정)와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9월 22-23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75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에서 "회전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및 포화도 산정 연구"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류와 단속류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전교차로의 특성을 분석했다. 또한 현재 회전교차로 서비스수준 산정시 관측값을 통해 얻은 기하구조 특성과 파라미터 값을 이용한 분석적 모형의 한계점을 시사하고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2016 서울시민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서울시, 한겨레 신문 주최)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과정)은 2016년 10월 7일 서울시에서 열린 '2016 서울시민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내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본 내용의 주제는 국내의 고령화시대,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대중교통 내부공간도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수준의 개선이라는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 수원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수원시 주최)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과정)은 2016년 11월 17일 수원시에서 열린 '수원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다목적 통행 서비스 증진방향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본 내용의 주제는 국내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된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감소시켜 복지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OPEN INNOVATION 수상(한국철도연구원 주최)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과정)은 2016년 11월 2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대중교통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이용률 증가 및 혼잡도 감소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수상하였다. 본 내용의 주제는 현재의 대중교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과 운영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 운영자는 운영비용 절감,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 교통사고 제로화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한국교통연구원 주최)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과정)은 2016년 12월 2일 한국교통연구원(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열린 '교통사고 제로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택시 요금제 변화를 통한 택시사고율 감소 및 이용률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내용의 주제는 택시의 질적 성장을 개선시키기 위해 택시요금을 조정하여 택시사고를 줄이며, 승객의 요금부담 완화에 따른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 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환경관리 전공 김종호(석사과정), 조유리(박사과정),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8월 11일 삼육대학교에서 열린 2016 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 "Different soil pitting patterns: A simple way to enhance infiltration and retention of water for forest soil"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토양의 수분 보유력을 결정짓는 다양한 패턴의 표면 거칠기를 분석하여 산림과 건조지에의 수분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환경관리 전공 윤보은(박사과정)과 환경관리전공 손민지(석사과정)은, 2016년 10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A Comparative Study on INDCs by Countries: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Indices'라는 제목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국별기여방안을 제출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사회경제적 지표에 기반하여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추계 학술대회 최우수상

환경조경학과 유영서(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식생 탐지에 적합한 디지털카메라 촬영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적외선 촬영 중 노출 차에 따른 식생 탐지 경향에 대한 파악과 함께 노출 적정 수준을 위한 근적외선 촬영 값을 제안하였으며, 지상원격탐사분야의 연구 장비로써 상용 디지털카메라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2016 제16회 자연환경대상 설계부문 최우수상

환경조경학과 박지혜(석사과정), 유창현(석사과정), 임종호(석사과정)는 2016년 제16회 자연환경대상 학생부문 설계공모에서 "맹꽁아 맹꽁아 노들집 줄게 집지어 다오"라는 제목으로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설계 작품에서는 노들섬에 노들꿈섬 공모 사업이 제안 됨에 따라 맹꽁이 서식지가 파괴될 위협에 놓이게 되었고 맹꽁이 대체서식지 조성과 기존의 맹꽁이 서식지 복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들꿈섬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설계안에서 노들섬의 기존 생태환경을 고려한 생태적 설계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제 8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입선

환경조경학과 이재호(석사과정), 최희준(석사과정) 외 1인(학부생)은 2016년 산림청이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에서 "안녕! 도시숲"이라는 제목으로 입선하였다. 이 설계안에서는 광양시의 옛 폐선부지를 대상으로 하여, 폐선부지 주변과 연계한 생태적인 도시숲을 제안하였다.

2016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수상

환경조경학과 백초롱(석사과정), 박성경(석사과정), 박한솔(석사과정)은 2016년 제1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기후변화와 조경의 역할이라는 공모 주제에 대해 "Infinite Running"이라는 컨셉으로 기존 도시환경과 과도한 인프라의 집적에 대한 문제를 수직농장을 통해 해결하는 제안으로 입선을 수상했다.

제 5회 생활정원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장혁권(석사과정), 나준수(석사과정)는 국립수목원 주최 제5회 생활정원공모전에서 최우수상(농림식품장관상)을 수상하였다. 8월 29일 1차 디자인 접수 통과 후 국립수목원에서 해당 정원 시공을 하였고,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작품제목은 <탁상위의 우주>이며, 10월 28일까지 국립수목원에서 전시를 한 뒤 은평구 도시농업센터에 기증되었다.

제 1회 천안시 도시디자인공모전 금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나준수(석사과정), 박경선(석사과정), 제현지(석사과정)는 천안시의 도시 경관과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실시한 제1회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에서 도시 기반시설 부문에 공동 출품하여 종합 금상을 수상하였다. 작품의 제목은 <Cheonan New Horizon>으로 12월 30일까지 천안시청 로비에서 전시를 진행한다. 출품작 내용으로는 낙후된 천안시 구도심에 인접한 천안역 일대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 시설, 복합 문화 시설 그리고 공원이 연계된 천안역 설계안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 환경조경학과 김서린(석사과정)

저는 지금 네덜란드의 레이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한 학기 간의 교환학생을 마무리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생생하게 뉴스레터에 저의 기억을 남겨 봅니다. 학부 때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공부해왔습니다. 석사 첫 학기에는 통일 이후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에 대해 공부하던 중 유럽의 역사문화환경을 사례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화유산 보전, 활용, 관리에 대해 다국적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현장에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답사를 통해 공부했던 사례를 생생하게 체험해보고 싶었기에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생이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나라와 학교는 한정적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주변국으로 답사를 떠나기에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국민 모두 영어를 잘 합니다. 네덜란드인이신 Wybe Kuitert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네덜란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레이던 대학교는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도시 전체의 학문적 흐름과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한 시민의식을 기반에 두고 16세기말 레이던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대학 건물이 하나 둘 지어져 산재해있기 때문에 레이던은 대학 도시라 불립니다. 레이던 대학교는 인문학과 법학으로 유명한 학교이며, 고고학과 커리큘럼 중 문화유산의 보전, 활용과 관리에 대한 수업들이 잘 짜여있었기에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어 했던 석사과정 수업인 '고고학적 유산의 최신 이슈'라는 수업은 교환학생이 들을 수 없다고 거절되어, 청강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수업을 통해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세계적 이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유산'이라는 수업에서는 지역주민과 원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유산 활용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던 대학교에는 동양학부가 있어 한국학과와 일본학과, 그리고 중국학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한 수업과 세미나를 들으며 북한에 대한 자료를 다수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교수님의 생생한 경험과 비판적 안목을 바탕으로 북한 정책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학과 친구들과 언어교환 프로그램이나 언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더치 친구들을 사귀고, 더치 문화를 접하기에 좋았습니다. 게다가 레이던은 암스테르담 공항과도 기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전엔 레이던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엔 런던에서 뮤지컬을 보는 스케줄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중북부에 위치해있는 네덜란드의 지리적 특성상,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가까운 나라를 버스 타고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거의 매주 답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유네스코 본사를 답사하며 꿈꿔왔던 국제기구를 돌아본 것과, 영국에서 그동안 공부해오던 역사정원과 세계유산을 답사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학기동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여러 도시를 답사하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문화유산과 이를 즐기는 방문자들의 태도 등을 보고 그 동안 문화유산 활용을 보수적으로 생각해왔던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학기가 끝나가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4학기의 석사과정 중에 한 학기를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는 것이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환학생 준비를 함께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과 유럽에 관한 수업을 듣고, 유럽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전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자했던 저의 목표를 모두 이루고 가게 되는 것 같아 후회없는 한 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11 석박사과정 학생 인턴십 활동

환경대학원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2학기부터 도시·환경 인턴십(Internship on City and Environment)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대학원 학생들은 국제기구, 도시·건축·조경설계사무소, 환경 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턴십 활동에 참여 중이다. 2017년 1학기에 도시·환경 인턴십 교과목을 수강할 계획으로 현재 UNESCAP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계획학과 이경민(석사과정) 학생의 인턴십 사례를 소개한다.

UNESCAP-ENEA, Environmental Affairs 인턴십 활동 소감

-환경관리전공 이경민(석사과정)

안녕하세요. 환경관리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경민입니다. 저는 올 해 2월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6 개도국 국제기상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or 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의 환경부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는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관하여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다자간 협력사업 개발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무소입니다. 제가 있는 환경부서에서는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 사무국 운영을 맡아 자연보전, 월경성 대기오염, 사막화 방지, 저탄소도시, 해양보전 분야에 관한 동북아 환경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NEASPEC의 월경성 대기오염과 저탄소도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분야를 supervisor께 말씀 드렸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된 주요 회의 및 세미나 참가, UN보고서에 사용될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내용 작성 등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 UN이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세부적인 시스템 운영체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UNESCAP에서의 경험은 저의 연구 관심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향후 진로에 관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와 관련지어 저탄소도시 플랫폼(Low Carbon Cities Platform, LCCP)에 관한 주제로 석사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여 연구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고, supervisor와 부서 직원들의 배려로 논문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십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모든 경험들은 저의 향후 진로 결정에 피와 살이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현명해지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UN에서의 인턴 경험은 근무 경력 이상으로 다른 문화와 환경 안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기르고, 저의 연구 분야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여 언젠가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잘 찾아보면 국내에서도 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학우들이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하여 뜻 깊은 경험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3.1 2016년 국제학술회의

Climate and Energy Policies after the Paris Agreement :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Challenges for Korea

2016년 9월 5일 환경대학원 글로벌 홀에서 "파리협정 이후 기후 및 에너지 정책 : 국제적 시각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2015년 12월 전 세계 196개 당사국이 합의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는 2020년 이후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국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넘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 실천하여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UN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여름 수십 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다. 게다가 가정용 전기 사용에 적용되는 과도한 누진요금제로 이중고를 겪었다. 만약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전기 사용 및 가격 구조를 둘러싼 불만과 갈등은 고조될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험 요소이자,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개최하였고,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분야의 대표 학자인 Michael Grubb 교수를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파리협정 이후 각국의 대응전략, 국제탄소시장, 에너지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해외학자로 Miguel Rescalvo(World Bank)는 "Linking in a New Paris Regime Key considerations with respect to MRV of mitigation actions"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파리협약이 기존 교토 프로토콜체제와 달라진 점을 설명하고 이로 인한 향후 국제 탄소시장의 변화를 전망하였으며, 또한 감축의무 강화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Jeff Swartz(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Association)는 "Carbon Pricing after the Paris Agreement and in Northeast Asi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파리협정 이후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탄소시장의 동향 및 협력 및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협정문의 Article 6은 국제 탄소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국은 시장메커니즘을 포함한 조세 및 감축정책의 믹스를 통하여 탄소가격의 설정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Michael Grubb 교수(University College London)는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s first Aim"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책입안자와 시장 참여자가 온실가스 가격의 적절한 가격 형성에 중요하며, 또한 장기적 안정성과 탄소 누출의 방지라는 목적에 근거한 가격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인센티브에 따라 탄소가격 메커니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방지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룹, 이러한 목적을 정량화하는 그룹, 정량화된 가치를 교환하거나 매개하는 그룹, 시장 내에 이러한 가치를 내부화하는 그룹 등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발표자 세션에서 주병기 교수(서울대)는 "Fair Allocation of Emission Rights"라는 주제로 배출권의 공평한 할당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공공경제학의 공리 기준들에 입각한 할당모형들을 제시하였다. 문진영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Review and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rbon Market Mechanism"라는 주제로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한국은 기존의 감축메커니즘에 기초하여 포스트 2020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부처 간 유기적 연계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오형나 교수(경희대)는 "Regional Patterns of GHG Emissions in Asia"라는 주제로 아시아 역내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개도국 경제에서 FDI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동규 박사(조세재정연구원)는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in Asia's Linking Carbon Markets"라는 주제로 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탄소시장 연계는 이론적으로 피구비안 텍스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발표에서 다뤘던 주제들에 대해서 발표자와 패널들이 참가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탄소시장의 발전방향과 각국에 바람직한 대응 정책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3.2 환경계획연구소 관리 연구

No	과제명	연구 책임자	위탁기관
1	미래 지향적 랜드마크 및 관광명소 개발 트렌드 분석 영역	최막중	(주)키먼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
2	아모레퍼시픽 용산 본사 상업시설 MD 조사 영역	최막중	(주)키먼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
3	충청남도청사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최막중	문화체육관광부
4	대도시 근교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이희연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5	[2차년도] 지속가능한 행복사회를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개조	전상인	서울대학교
6	고양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영성	미래창조과학부
7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색도시 디자인 기술 개발	이석정	미래창조과학부
8	국도1호선 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타당성 재조사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9	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수요 측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10	신분당선(호매실~봉담) 복선전철 예비 타당성조사의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11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타당성 분석 검토의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12	천안~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13	호남 KTX~충북선~중앙선~원주-강릉 연결선 신설노선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영역	이영인	(재)충북연구원
14	포항~동해 전철화사업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이영인	한국개발연구원
15	차량 통행경로 분석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조사 분석 연구영역(1차년도)	이영인	한국도로공사
16	'KTDB 랩 플랫폼 유지보수,중 전국 단위 교통망 기초DB 구축 및 대정부 서비스 기반 구축 연구	이영인	한국교통연구원
17	경인고속도로(서인천C~신월C)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이영인	한국개발연구원
18	철도 투자평가제도 개선연구	정수은	한국철도시설공단
19	[공모/중진학자]세대간 소통과 사회-생태계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전통생태지식 탐구	이도원	아산사회복지재단
20	서울대학교의 녹색 캠퍼스 실현을 위한 중앙광장 활용방안 연구	이도원	기획처
21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타당성 분석 연구	홍중호	한국개발연구원
22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 동기와 만족도 조사	윤순진	서울특별시
23	10대 녹색·기후기술 국내외 정책현황 조사분석	윤순진	녹색기술센터
24	매공 유역 개발과 환경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2차년도)*	윤순진	한국연구재단
25	생물다양성 및 경제적 관련 전문기양성(3차년도)*	윤순진	국립생물자원관
26	국가주요지표 체계 환경부문 필요지표 진단 연구*	윤순진	통계청
27	위생용품 제조 등 업체대상 위생 및 법인식 관련 실태조사*	윤순진	한국법제연구원
28	토지이용과 주말통행 간 관계 탐구	김태형	서울대학교
29	순천만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영역 - 2차분	성종상	지방자치단체
30	정원산업육성 국제심포지움 영역	성종상	지방자치단체
31	"체천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 영역" 중 조정 및 시설물 설계	손용훈	산림청
32	너비물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손용훈	지방자치단체
33	저지·청수·무릎 곳자왈 시험림의 경관자원특성분석 및 휴양이용공간계획 이미지화 연구	손용훈	산림청
34	베트남 후에서 워터프런트 도시설계: 수요자 맞춤형 국제협력방안 연구	김세훈	미래창조과학부
35	아외전시장 재배치 및 다목적 컨벤션센터 기본 개념 수립	김세훈	미래창조과학부
36	공간정보해석에 기반한 조성녹지 및 수목의 평가와 관리	송영근	서울대학교
37	스트레스 저감 이론의 공간인지 범위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 청계천을 중심으로	김무한	교육부
38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형태 특성에 관한 연구	김희철	교육부
39	도시의 레질리언스를 위한 사회-생태 시스템 융합 연구: 이론적 기초, 실험 개발 및 스튜어드십 설계	윤태경	교육부

주: * 24~27번 과제는 환경계획연구소가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되는 연구임.

교수동정

환경계획학과 최막중 교수

- 7월 3-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세계도시계획대학총회(World Planning Schools Congress)에 참가하여 한국 고유의 도시개발 특성을 분석한 "The Korean Model of Urban Development: A Exploratory Approach" 논문을 발표하였다.
- 7월 25-2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된 UN-Habitat III 3차 준비회의(Precom3)와 10월 16-21일 에쿠아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총회에 한국 국토도시계획학회(Korea Planning Association)와 아시아도시계획대학협회(Asia Planning Schools Association)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다. UN-Habitat III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전세계의 새로운 도시 과제(New Urban Agenda) 선언을 채택, 공표하였다.
- 10월31일-11월2일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국제자문단의 일원으로 싱가포르 정부의 초청을 받아 '2050년 싱가포르 계획' 수립에 관한 심층 자문 및 장관 보고를 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

- 외부활동**
기획재정부 증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2016.8.1.-2017.7.3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겸무연구원(2016.8.1.-2018.7.31.)
- 강연**
2016.7.14.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2016 청년비전캠프 특강 (포항공대 국제관)
2016.1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언론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제주웰컴센터)
<제주의 환경미래,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리더들에게 듣다>
발제 내용 "제주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언론의 역할"

환경계획학과 김경민 교수

- 김경민 교수는 9월 21~24일 하버드대학교에서 개최된 '21st Century New Towns Conference'에 참석하여, "Right Place, Right Time : The Rise of BunDang"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하버드 대학교 리처드 파이저교수의 신간(2017년 발간 예정)의 한국 챕터로 수록될 예정이다. 전 세계의 많은 뉴타운 개발이 초기 사업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분당의 경우 정부 리더십과 도시계획 및 전략, 그리고 인구,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매우 성공적인 뉴타운 개발 사례임을 설명하였다.
- 한국인물사연구회와 민세기념사업회가 공동주관한 '제10회 민세학술대회' (2016.09.23) 에서 '일제강점기 건축왕 정세권의 항일운동 재조명'을 이지은(박사수료생)과 발표하였다. 민세 안재홍(조선일보 사장 역임)과 동지적 연대를 맺어 독립운동을 함께 한 기능 정세권의 삶과 그가 개발한 북촌 일대 한옥집단지구의 독립운동사적 도시계획/개발사적 의의를 짚었다.
- 김경민 교수는 제8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서울문화재단 주최 2016.11.23) 에서 "예술인 그리고 그들의 창작공간"을 발표하였다. 본 발제는 예술인들(혹은 작업실)이 Local Buzz와 Global Pipeline의 혜택을 향유하고자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적하기에, 이들이 모인 지구에 대한 안정적 보존정책-창작공간 제공자와 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 10월 18일부터 3일 동안 공유경제와 공유도시 형성을 위한 비전과 과제 발굴을 위해 진행된 '공유도시, 공유경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 세미나를 (사)CODE (前 CC코리아), 소셜벤처 어반하이브리드와 공동기획하고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기타 연구활동으로, '전세의 월세전환과정에서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 분석'을 서울도시연구 2016년 09월호에 이석준(박사수료)과 함께 발표하였고, 한국경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12월 3일)에서 '1920-30년대 경성 교외화에 대한 연구 - 문화주택 개발을 중심으로' (이지은 김경민)와 '조립식 주택을 적용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모델'(이석준 지영현 이상욱 김경민)을 발표하였다.
- 다른 활동으로는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MP로 참여하여, 공공예술을 활용하여 주민센터(중로구 삼청동, 창신1동과 금천구 독산4동)의 지역성을 살리는 기획을 수행하였다. 삼청동 주민센터 주차장 일부를 현대적 정원으로 해석하고 북촌의 상당수를 개발한 기능 정세권을 기리는 차원에서 '기능정'으로 기획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11월 완공되었다.

환경계획학과 이도원 교수

- 환경계획학과 이도원 교수는 지난 8월 25일부터 13주간 진행된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와 월간「산」이 공동으로 개설한 '산과 문화' 강좌에서 '생태와 경관(6주차)'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이 강의에서 이도원 교수는 어릴 적 마을 뒷산에서부터 비단길 답사까지 인생 곳곳에 닿아 있는 산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그 풍경 안에 깃든 다양한 사연의 산의 생태를 수강생들과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환경계획학과 이도원 교수 연구실은 8월 27일 토요일 82동 환경대학원에서 '24주년 에코랩 홈커뮤니티'를 개최하여 졸업생들 및 재학생들 30명과 함께 학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홈커뮤니티는 연구실 소식 나눔을 비롯한 에코랩 동문 국립생태원의 배소연 박사(환경 박사10),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변재호 박사후연구원(환경 05),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서범석 박사후연구원(환경 06)의 졸업생 주제 발표 등 다양하고 유익한 행사로 꾸러졌다.
- 환경계획학과 이도원 교수 외 연구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아산사회복지재단 위탁과제로 "세대 간 소통과 사회-생태계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전통생태지식 탐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획처 위탁 과제로 "서울대학교 녹색 캠퍼스 실현을 위한 중앙광장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

- 윤순진 교수는 다양한 국제학술행사에 초청 받아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환경정책, 환경운동과 탈핵운동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1. 2016년 7월 14일 태국 치앙마이대학교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세미나, "Next Step for Asia Public Administration"에서 "South Korean Environmental Policy (한국의 환경정책)"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2. 2016년 7월 30일-31일 양일간 나고야대학교의 아시아 속의 일본 문화연구센터(Japan-in-Asia Cultural Research Center, JACRC)가 주최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Cultually Mediated Environmental Issues in East Asia(문화적으로 매개된 동아시아의 환경 쟁점)"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여 "Post-Nuclear Movements in Sou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한국의 탈핵운동: 후쿠시마 핵참사 이전과 이후)"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3. 2016년 8월 1일에는 일본 메이조대학교의 초청으로 제1회 경제경영학회강연회에서 "The Advent of the New Climate Regime and Tastes of South Korea (신기후체제의 등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4. 2016년 10월 15일에는 일본국제교류센터의 초청을 받아 북경대학교에서 열린국제세미나 "Rediscovering Common Bonds among Japan, China, and Korea (한중일-유대의 재발견)"에 참가하여 "Korea's History of Overcom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hallenges to Low Carbon Safe Future (환경오염을 극복한 한국의 역사와 저탄소 안전 미래를 위한 도전)"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5. 2016년 11월 1일에는 Seoul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2016 (2016 서울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Energy Citize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NPP Initiative (원전 하나 줄이기를 통해 본 에너지 시민성)"을 주제로 한패널토론에 패널로 참가하여 "Mutual Facilitatoors, the OLNPP and Energy Citizenship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과 에너지 시 중심의 상호 촉진 작용)"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6. 독일 메르켈 총리실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유엔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고 2000년에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의 종료를 기점으로 새롭게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한 이후 1년이 되는 때에 Open SDGclub.Berlin이란 행사를 2016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하였다. 이 때 전 세계 40여 개국 80여 명의 SDG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윤순진 교수도 초청을 받아 전세계적인 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는 뒤셀도르프에서 Sustainability Forum이 열려 Next Economy Award Dusseldorf 2016 행사와 Sustainability Award 행사가 열렸는데 유럽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로 높은 평판을 얻고 있는 이 두 행사에 참석하였다.



- 국내 학술행사에는 10여 차례 이상 참가하여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학술행사로는 대한전기협회가 8월 31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KEPIC-Week Conference에 초청을 받아 "신기후체제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력산업"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9월 29일에는 "환경에너지운동과 시민과학의 도약"이란 주제로 열린 제7회 2016 환경에너지 시민학술회에 초청을 받아 "환경에너지 위기시대, 시민과 시민과학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또 10월 28일에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와 한-아세안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메콩 스페셜 세미나"에 참가하여 "메콩의 기후변화와 경제상장의 딜레마: 캄보디아의 수력발전 개발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으며, 12월 13일에는 지구촌구호개발연대가 개최한 제2차 아카데미에 초청을 받아 "기후변화가 가전온 기후재난의 고통과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외 한국사회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등이 개최한 학술회에 학생들과 함께 10여 편 이상의 글을 발표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오능환 교수

- 오능환 교수가 하천 탄소 연구의 중요성과 하천 탄소의 성상별 생지화학적 특성을 정리한 총설이 「생태와 환경」 2016년 00권 00호에 게재되었다.
- 오능환 교수는 이은주(박사과정), 정현영(석사졸업), 신예라(석사졸업), 이승철(석사과정), 고민정(석사과정), 차지연(석사과정)과 American Geophysical Union Annual Meeting에서 세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Lee E.J., Chung, H.Y., Shin, Y., and Oh, N.H. "Dynamics of stream carbon species in a small forested watershed under Asian Monsoon climates."
 - Lee, S., Go, M., Cha, J.Y., and Oh, N.H. "The role of hydrology on stream carbon species across a forest-urban landscape gradient."
 - Cha, J.Y., Cha, Y.K., and Oh, N.H. "The effects of tree species on soil organic carbon content and distribution in South Korea."

환경계획학과 김태형 교수

-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고준호 박사(서울연구원), 랜달 슬러 교수(조지아텍)와 함께 전기차, 연료전기차 등 대안차량의 충전소 입지에 관한 체계적 문헌 검토를 SCI급 저널에 실었다.
 - Ko, Joonho, Tae-Hyoung Tommy Gim, and Randall Guensler. Locating refueling stations for alternative fuel vehicles: a review on models and applications. Transport Reviews. (In press)
- 이와 함께 국문논문 4편을 KCI급 저널에 출간하였는데, 먼저 GRI 연구논총에는 내국인 관광객 만족도가 시도별로 어떤 구성을 보이는지 밝히고 시도별 현황에 따른 개선전략을 제시하였으며(단독저자), 주택도시연구에는 아파트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교신저자). 서울도시연구에 실은 두 편의 논문 중 첫째에서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입지 고려사항에 대해 연구하였고(교신저자), 두 번째에서는 서울시민의 통근시간 변이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적 변수와 지역적 변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교신저자).
- 김태형 교수는 지난 8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도시계획학회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Pacific Planning Societies)에서 교통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고, 11월에는 미국 포틀랜드에서 개최된 도시계획대학협의회(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연례컨퍼런스에서 주거자기선택이 내적타당성과 외적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차원에서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 201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산학술대회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Papers in Regional Science에 발표된 단독연구로 국제학술활동상을 수상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태형 교수는 작년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에 실린 단독연구가 한국연구재단(교육부)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부터 재단 지원으로 건조환경이 비만, 건강, 체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

- 조경진 교수는 2016년 10월 28일 서울시가 주최하는 '공공공간 운영혁신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서울의 새로운 공공공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하였다.
- 12월 13일에는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에서 '공공공간 속의 공공미술: 공공성의 재구성'을 발표하였다.
- 12월 16일에는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움'에서 서울식물원 총괄계획가로서 '서울식물원 계획이념과 과정'을 소개하였다.
- 11월 29일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하는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에서 '철원 장소기억에 관한 평화예술프로젝트'란 주제발표를 하였다."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

- 김세훈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과천과학관 기본계획과 다목적 컨벤션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과제를 외부 연구진과 함께 2016년 7월~12월까지 수행 중이다. 그리고 연구실 석박사생들과 함께 8월 베트남 후에시를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 11월 3-6일에는 인도네시아 디포네그로 대학에서 "한국의 도시설계 50년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초청강연을 했다.
- 김세훈 교수는 최근 조시은 박사생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재해취약지역의 적응 방식에 대한 연구를 SCI급 논문으로 출판했다.
 - Cho, Sea Eun, Won, Sehyung, and Kim, Saehoon. 2016. "Living in harmony with disaster: Exploring volcanic hazard vulnerability in Indonesia." Sustainability, 8(9): 848.

석·박사 과정

5.1 2015학년도 후기 졸업식



2015학년도 후기 졸업식이 2016년 8월 29일 월요일에 거행되어 석사 36명(환경계획학과 23명, 환경조경학과 13명), 박사 10명(환경계획학과 8명, 협동과정 조경학 2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는 석사학위자 우수논문으로 환경계획학과 김다운, 조황영, 환경조경학과 민경훈, 박지은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5.2 2016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요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6년 2학기 장학금 수여

2016년 8월 29일 졸업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는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이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구재서 장학금**이 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6년 2학기에는 **환경조경학과 조성아 학생(석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김혜진, 이종우, 차지연 학생,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장윤선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교통학 전공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6년도 2학기에는 **길상준(박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 동문 장학금**은 환경관리 전공 재학생 중 논문 실적을 고려하여 우수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한 학생 2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6년도 2학기에는 **이은주(박사수료) 학생과 송지혜(박사수료)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2016년 2학기 양과 통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난 8월 24일, 환경대학원 글로벌홀에서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환경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은 지난해에 이어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 통합으로 진행하였다. 당일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총 65명(환경계획학과 43명, 환경조경학과 15명, 협동과정조경학 7명)과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윤순진 부원장, 양 학과 학과장 및 여러 교직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환영인사로 시작하였고, 학교시설 소개, 교수진 및 교과목 소개, 장학금 안내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후에는 학과 및 전공별로 학과장 및 연구조교들과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잠시 휴식 후, 신입생들은 동기들과의 팀작업 미션을 수행하였다. 환경대학원 PR Song 만들기 미션을 받은 신입생들은 팀별로 자신들의 소개와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각오 등을 노래로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팀에 대한 시상을 가진 후 2부에서는 저녁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5.3 학생회 활동

1) 환경대 옥상 양봉 프로젝트

환경대학원 5층에는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접어둘 수 있는 휴식처, '옥상 정원이 있다. 이 휴식처에 이사가 오게 된 바깥은 이웃이 있었으니, 바로 '꿀벌'이다. 지난봄부터 현 학생회와 양봉업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함께 벌통 24개로 양봉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졸업생들은 1년간 학생회에 양봉에 관한 기술을 전수해주며 옥상 임대에 대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꿀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학생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약 두 달간 옥상에서 꿀벌들과 동거동락하였고, 양봉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종종 현장방문 요청할 때에는 체험활동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6월에 이르러 꿀벌들이 열심히 날갯짓으로 마련한 숙성된 꿀을 채밀하게 되었다. 특히 이 꿀 중 일부는 학교와 동창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9월에 열렸던 홈커밍데이 동창회 기념품으로 판매되었으며, 동문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 수익금으로 10월에 진행되었던 '중간고사 맞이 간식어택'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현재는 대부분의 벌통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두 개의 벌통만이 남아있으며, 학생회는 2017년 양봉을 계획하고 있다. 다가올 2017년 봄, 누구라도 옥상정원에서 꿀벌을 만나게 된다면 거친 손길이 아닌 반가운 미소로 반겨주기 바란다.



2) 중간고사맞이 간식 어택

2016년 10월 13일, 학생회에서는 중간고사 준비로 지친 환경대학원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맞춰 깜짝 간식 어택을 진행하였다. 간식은 식사 대응 또는 야식으로 가장 적합한 만인의 연인 컵라면과 핫반을 준비하였고, 사전 공지에 맞춰 1시간 동안 환경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하였다. 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준비한 모든 간식을 나눠줄 수 있었고,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에게 웃음을 되찾고 응원이 되는 시간이었다.



3) 건의함 1층·3층 배치 "불편할 땐, 학생회 건의함을 찾으세요~"

학교생활에 있어 건의사항 혹은 학생회에 요구하는 바를 경청하기 위해 학생회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1층과 3층에 건의함을 운영 중이다. 건의함이 학생들의 요청을 100% 해결해주는 지니의 램프는 아니지만, 학생회는 학교와 소통하며 건의사항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건의함은 1층 사물함 위, 3층 현관 모니터 옆에 비치되어 있으며, 익명으로 접수받는 만큼 환경대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4) 1층 활성화 방안(칠판) "정보를 공유해보아요~"

그 동안 환경대학원에는 학생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없었다. 이에 학생회는 이번 학기부터 1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1층 커피프린스 위에 칠판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환경대학원 학생 및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야 하며, 불미스러운 일(욕설, 음담패설, 사행성 목적의 글 등)의 예방 차원에서 학생회에 사용 목적을 사전에 알리고 승인받아 활용할 수 있다.



5) 국제학생 컨퍼런스 'BareFoot' 수강 소감

President of International Student in GSES, Chris

It has been another wonderful semester here at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We are happy to report that several new students from abroad have joined our family. We now host international students from nearly twenty countr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SES are making great strides in increasing diversity and supporting international students. At this very moment, a large dorm is being erect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are gaining knowledge from a diverse array of cultur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becoming more global, and this is a good thing for everyone. This past semester, there have been events, workshops, and of course, classes including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is global exposure is good for Korean students, and for any international student who attends SNU.

On October 25th, GSES organized a conference with special lecturer Lewis Patterson. Lewis' talk, entitled "Bare Feet" exposed students to the process of starting and growing a business in Korea, from a foreigner's perspective. Lewis' insight and experience as the chairman of the New Zealand chairman of commerce in Korea and with his company, Latitude Inc. allowed for a very interesting learning experience for Kore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alike. It is opportunities like this that make SNU and GSES a great place to learn and grow.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make both SNU and GSES a more competitive and dynamic educational experience. Let's continue to learn and grow together. "Veritas lux mea" - The truth is our light.



6) 국내·국제 학생 교류 순대파티

2016년 11월 12일 저녁, 현재 재학 중인 환경대학원 국제학생들과 국내학생 간 교류의 장이 열렸다. 이를 위해 학생회에서는 국제학생회와 함께 사전답사, 참가자 조사 및 교류 당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서먹함 없이 편히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간 친분을 다지고 학업·생활 분야에서 국제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 음식에 호기심이 많은 국제학생들의 요청을 받아 신림의 유명한 먹거리인 순대를 같이 즐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6.1 SGS 제33기 출범

지난 9월 21일,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제33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의 출범식이 있었다.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국토, 도시, 환경 분야가 맞이하는 도전과 과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를 가지고 2017년 4월까지 정기강좌와 국내외 시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막중 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프로그램 혁신을 통해 명품강좌로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과정을 소개하고, 송두영 회장을 비롯한 SGS동창회의 학교 발전을 위한 공로에 감사를 표하였다. 33기부터는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이 공동주임교수로 함께 과정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31-32기에 공동주임교수로 참여한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백운수 미래E&D 대표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33기는 전후반기 총 19주 동안 33세션의 교육과 국내 및 해외 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히 동문 펠로우와 석·박사과정 동문 및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특강을 5회 마련하여 분야의 이슈가 되는 주제와 비종있는 특강자를 초빙할 계획이다. 전반기에 진행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픈특강 I: 세계화시대 한국인의 심상: 지형, 역사, 성정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	세계화·지방화 시대/다품종·소량생산 시대 공간 가치 창출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3	도시주거의 새로운 전개	(최명철 단우건축 대표)
4	스마트 그린시티: 신기후체제 시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김기호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5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이희연 환경대학원 교수)
6	거대개발과 거버넌스	(김경민 환경대학원 교수)
7	오픈특강 II: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공공디벨로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8	도시환경과 시민사회 - 새로운 거버넌스	(양병이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9	4차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와 미래 지역 발전	(이영성 환경대학원 교수)
10	도시환경의 디자인 I: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과 '창조(적) 도시'	(서예례 환경대학원 교수)
11	도시환경의 디자인 II: Urban Waterfronts - An approach to landscape infrastructure	(이유미 환경대학원 교수)
12	도시경관의 관리 -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손용훈 환경대학원 교수)
13	그린을 통한 건강·행복 증진 - 우리 시대 정원의 이유	(성종상 환경대학원 교수)
14	오픈특강 III: 기후변화와 건강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후반부에는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12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33기에 참여하는 36명의 펠로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석규(무영CM건축사사무소 상무)	송명호(왕산플래너스 대표)
강선미(금천구청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무관)	송영주(선우이앤씨 대표)
김명호(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신승도(양평신내서울해장국 대표)
김상연(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지형(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주무관)
김용배(KCC홀딩스 상무)	엄형원(PMK 대표)
김용준(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	우미경(서울시의회 의원)
김은희(니켈세케이 서울지사 부지사장)	이봉훈(진화건축건축사사무소 사장)
김재준(방림이엘씨 대표)	이상대(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
김정희(동양건설산업 부사장)	이영권(동아석재산업 대표)
김중원(한국조명서비스 대표)	이형주(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지현(부산시의회 정책연구팀장)	임창원(경기도청 건설안전과장)
김학진(서울시청 도시계획국장)	정성호(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부장)
김훈희(H Square Design Works 대표)	조범주(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부장)
문종화(안산시 상록구청장)	지영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기정(한국국토정보공사 수석팀장)	최진욱(해안건축 소장)
박상권(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한영숙(씨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대표)
박혜란(대흥리사이클링 전문)	홍미영(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
방효영(정림건축 상무)	홍준용(법무법인 동우 변호사)



6.2 SGS 33기 국내시찰

33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에서는 9월 24~25일, 1박2일 일정으로 수원시와 광고 신도시를 다녀왔다. 손혁재 前수원시정연구원장(SGS 30기)의 '수원의 현황과 미래'라는 강연을 통해 수원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수원시의 협조로 수원 화성과 행궁동, 해우재, 수원역 일대, 광고 신도시를 방문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의 성과, 자원순환을 위한 아이디어와 노력, 수원역 교통환승센터 계획, 광고 신도시의 추진 과정과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국내시찰은 김광중 주임교수와 이재준 공동주임교수를 비롯한 32명의 펠로우가 함께 하였다.



6.3 SGS 33기 오픈특강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33기에서는 모두 5회의 오픈특강을 마련하고 있다. 오픈특강은 기존에 수료한 펠로우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별강좌이다. 펠로우들은 수료한 이후에도 SGS 등창회 활동과 함께 오픈특강과 해외답사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평생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픈특강은 환경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동문들에게도 개방된다. 32기부터 제공된 오픈특강에는 매회 10명 내외의 수료한 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동문들이 참여하였으며, 주제에 따라 다수의 석·박사과정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33기의 전반부에는 3회의 오픈특강이 열렸다. 9월 29일에는 개강행사로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세계화 시대 한국인의 심성: 지형, 역사, 성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10월 27일에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공공디벨로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12월 6일에는 기후변화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개최되었다. 오픈특강은 저녁시간에 진행되며, SGS 펠로우와 석·박사과정 동문들에게 사전 공지된다. 과정의 사무국(snusgs@snu.ac.kr, 02-880-8525)에 예약하면 저녁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민환경대학

7.1 시민환경대학 대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 9기 시민환경대학 수료생 대표 신길식입니다.

저는 평소 자연환경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이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개인적 관심을 가지는 데에 그치지 않고 환경에 관한 시야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 내용에 크게 만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지구 생태계와 오존층 파괴, 사막화, 생물의 멸종 등 환경 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면서 지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환경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생활주변의 환경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숨 쉴 땀 대기환경, 출근 시 도로환경, 식당에서는 위생환경, 집에서는 가정환경, 산에 가면 생태환경, 강가를 지날 때는 습지환경 등 모든 일상생활에 환경을 연결하고 접목해서 생각하게 된 점을 가장 큰 교육 효과로 생각합니다. 평소 내 주변 환경변화의 징후들을 잘 관찰하고 현재의 환경을 잘 보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터전인 내 고향을 지키는 동시에 지구의 한 부분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시민환경대학에서 받은 강의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일깨우는 환경파수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위해 수고하셨던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길식 드림

시민정원사

8월 26일에 시작된 하반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이 3개월 14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종강식을 끝으로 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공원 및 수목원, 마을가꾸기 등의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본 과정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과정 중 이른 위주의 과정을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서 주관하여 2년간 운영되다가 2016년부터 정원에 적합성이 높은 우리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학기 강사진은 환경조경학과 성중상 교수, 조경진 교수, 이유미 교수, 송영근 교수, 외부강사 김용택 소장(K기 환경디자인스튜디오), 조혜령 작가(가든디자이너, 환경조경학과 박사과정)로 구성되었고, 교과 편성은 다음과 같다.

정원학개론, 동양정원사	성중상 교수
서양조경사, 현대도시의 삶과 정원문화	조경진 교수
도시생태와 정원	송영근 교수
정원설계1	김용택 소장
정원설계2	이유미 교수
정원설계2, 답사(교내정원)	조혜령 작가
현장답사	서울시정원박람회, 국립수목원

이번 하반기 과정은 6기 서울시민정원사로 교육을 들은 70명의 수강생 중 68명이 수료해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4월부터 시작되는 2017 봄학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3월 중 모집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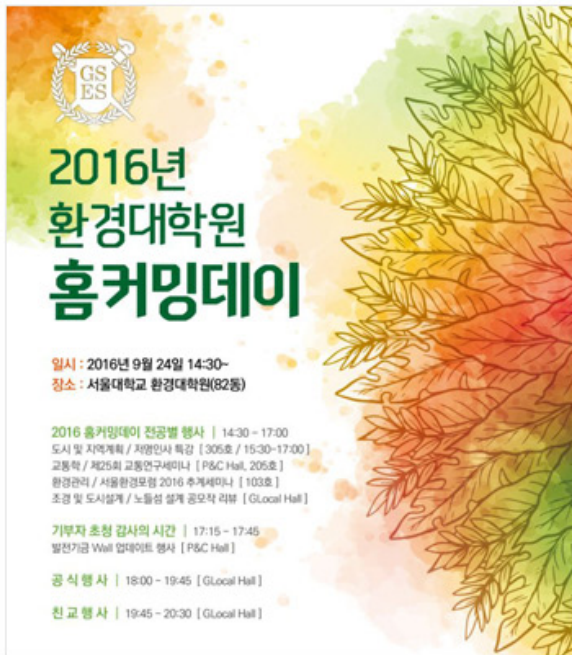
동문소식

9

동창회

9.1 2016년 동문 홈커밍데이

지난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는 동문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오후 2시 30분부터 끝나는 저녁 9시까지 동문 120여 명을 비롯하여, 명예교수 및 현직 교수, 재학생까지 총 15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환경대학원 동창회가 주최하였으며, 환경관리 전공 동창회와 올해로 졸업한지 30, 20, 10년이 되는 환경대학원 86, 96, 06학번, SGS 2기, 17기 18기 동문들이 주관하였다. 2016년 홈커밍데이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공별 행사

15:30-17:00	도시 및 지역계획 저명인사 특강 교통학 제25회 교통연구세미나
14:30-17:00	환경관리 서울환경포럼 2016 추계세미나 조경 및 도시설계 노들섬 설계 공모작 리뷰
기부자와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	
17:15-17:45	발전기금 Wall 업데이트 행사

홈커밍데이 공식행사

18:00-18:30	저녁식사
18:30-19:50	개회사, 환영사, 전공별 동문활동 소개, 공로패 수여, 명예교수님 스피치
19:50-20:50	재학생 축하공연, 명예교수님 애장품 경매, 경품 추첨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홈커밍 행사에 앞서 각 전공별 행사를 실시했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은 저명인사 특강, 교통학 전공은 제 25회 교통연구세미나, 환경관리 전공은 서울환경포럼 2016 추계세미나, 조경 및 도시설계 전공은 노들섬 설계 공모작 리뷰를 개최하였다. 각 전공별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소식 중 [2 행사/학술/연구]의 각 전공별 내용에 소개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층 P&C Hall에서 기부자와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발전기금 Wall을 업데이트하는 행사로, 윤순진 환경대학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윤순진 부원장의 발전기금 Wall 및 기부자 우대계획 소개가 이어졌다. 발전기금 Wall에 새롭게 명패를 올린 기부자는 환경대학원 최고위과정 32기,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유세한, SGS 8기)를 비롯하여, 송두영 동창회 부회장(SGS 22기, 대승산업 대표), 김태형 환경계획학과 교수(환경 01), 박지혜 동문(환경 01), 전제열 동문(도시 03), 한태환 동문(조경 90) 등 총 22개의 기부자 명패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었다. 특히,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해온 박지혜, 전제열 동문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발전기금 Wall에 명패를 올리게 되어, 본인은 물론 다른 동문 및 재학생들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되었다.



저녁식사와 함께 진행된 공식 행사는 주관기수 대표 이응경 동문(환경 96, ㈜터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완영 동창회장(도시 80, 국회의원)의 개회사,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이를 이어 전공별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공별 활동 발표는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대표 변창흠 부회장(도시 88, SH공사 사장), 교통학 전공 대표 김연명 부회장(교통 85,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관리 전공 대표 조경두 부회장(환경 86,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 및 도시설계 전공 대표 안계동 수석부회장(조경 79, 동심원 소장), SGS 최승휴 운영이사(SGS 22기, 씨케이에코 대표)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2015년 홈커밍데이 주관 전공으로서 크나큰 공헌을 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대표 변창흠 부회장의 공로패 수상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명예교수 10분 스피치 시간으로 김안제, 양병이 명예교수님께서는 과거 환경대학원의 생활과 사제 간의 추억을 재미있고 유쾌한 말씀으로 전해 주셨고, 김정욱 명예교수님께서는 멋진 가곡을 불러 운치있는 가을밤으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여기봉(재학생 학생회장), 박한철의 사회로 다양한 친교행사가 진행되었다. 환경관리 전공 김주리, 유주연, 임현지의 댄스공연(소방차 '아제밤 이야기')과 명지음, 여지원, 조은별, 최정호, Nurlin의 댄스공연(Jessy Matador 'Bomba'), 교통학 전공 김민주와 동호회 동료 5명이 함께한 살사공연 등 재학생 축하공연으로 홈커밍데이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번 홈커밍데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명예교수님 애장품 경매행사가 시작되었다. 김안제 교수님의 서예품과 김정욱 교수님의 수제쿠키가 출품되어 총 낙찰가가 217만 원에 달했으며, 이를 기증자인 명예교수님과 낙찰자의 공동명의로 환경대학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2016년 홈커밍데이의 하이라이트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행사 중반에는 김종일 동문(도시 84, 우방건설산업 부사장)이 후원한 화장품 세트 20개를 추첨하여 경품으로 지급하여 그 즐거움을 더하였다. 행사 종료 후에는 학생회가 환경대학원 옥상에서 직접 양봉한 속성꿀을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여 모든 동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특히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를 치루고 남은 예산 200만 원을 '2016 홈커밍데이 주관기수의 이름으로 환경대학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여 동문 홈커밍데이의 의미를 더하였다. 그 명패는 2017년 발전기금 Wall 업데이트 행사에서 설치할 예정이다. 바쁜 일정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긴 시간 참석해주신 모든 동문들, 명예교수님 및 교수님들, 재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2 SGS 동창회 하계해외답사

SGS 동창회에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여름 휴가기간에 세계 도시·환경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도 “토카치 와인, 필스너 맥주와 함께하는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란 주제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SGS동창회 펠로우와 가족 등 30여 명이 해외답사를 다녀왔다. 주요 답사지는 다음과 같다.

- 헝가리**
- 부다페스트(Budapest) * 갤러르트/세체니 온천
 - 홀로케 전통마을(Old Village of Hollókő) *
 - 에게르(Eger) * ‘Eger Bulls Blood’ 와인
 - 토카이(Tokaj) * ‘토카치 달콤한 옐로우 와인’ *

- 슬로바키아**
- 바르데요프(Bardejov) 요새도시 * / Hervartov 목조교회 *
 - 레보차(Levoča) / 스피시키 호라드(Spišský Hrad, Spis Castle) * / 스피시키 카피틀라(Spišský Kapitula)
 - 오라바(Orava) 고성 / 블콜리네츠(Vlkolínec) 전통가옥(통나무집) *
 - 반스카 비스트리카(Banská Bystrica) 흐론섹(Hronsek) 목조교회 *
 - 반스카 슈티아브니차(Banská Štiavnica) * : 중세 금광 경사언덕도시
 - 보이니체(Bojnice) 城 / 치치마니(Čičmany) 민속마을
 -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 다뉴브강, 슬로바키아 수도

- 체코**
- 크로메리츠(Kroměříž) 바로크 정원과 성 *
 - 올로모츠(Olomouc) : 삼위일체석주(Holy Trinity Column) *
 - 브르노(Brno) : 모라비아 수도, 체코 제2도시 - 투겐하트 별장(Tugendhat Villa) *
 - 트르네비치(Třebíč) : 유대인지구와 성 프코코피오 교회 *
 - 필센(Pilsen) : 1842년 세계최초 라거맥주 Pilsner Urquell
 - 보헤미아 온천 삼각지대 : 카를로비 바리(Karlovy Vary), 마리안스케 라즈네
 - 프라하 - 인근 Karlštejn성 포함 * 마리오네트 인형극

*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동문동정

10.1 석·박사과정 동문 동정

- **이강건**(계획 7회) ㈜선진엔지니어링 부회장은 2016년 11월 5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기술사대회에서 (재)덕원장학회가 지원하는 덕원기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이강건 동문은 국내에서 쌓은 38년의 신도시 설계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한국형 신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알제리, 베트남, 볼리비아에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덕원기술상은 (재)덕원장학회가 지원하는 기술연구지원금으로 산업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우수 기술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최주섭**(계획 8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계간 아동문학세상 2016년 겨울호에 계절 동화 '도시로 떠난 덕이'를 기고하였다.
- **하성규**(계획 10회)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중앙대 명예교수)은 지난 9월 1일 프레젠테이션에서 개최된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KHSS)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는 국토교통부와 LH, S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한국주거학회 등 관련학회 및 연구소, 사단법인 아가포럼,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단체, 관련 NGO 전문가 등 100여 명을 주축으로 주거생활-주거복지 등 주거서비스를 연구, 발전 시키기 위하여 발족하였다.
- **고문현**(계획 27회)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장은 지난 12월 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김연성**(계획 28회)은 2016년 8월 미국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관리 Public and Nonprofit Management 분야에서 2016년 최고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아래와 같다.

Kim, Y. and Darnall, N. (2016), Business as a Collaborative Partner: Understanding Firms' Sociopolitical Support for Policy Form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6(2):326-337.

- **계기석**(조경 2회)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2016년 12월 2일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수여하는 제5회 '야립 도시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야립 도시학술상은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해당 연도에 가장 뛰어난 연구업적과 학회 발전에 공헌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2016년 9월 26일 '파리의 공원들: 도시계획, 조경, 인문적 산책(도서출판 한숲)'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파리 도시공원 산책'과 '파리 도시공원의 생성과 발전'으로 구성된다. '파리 도시공원 산책'은 공원별 조성 역사와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500개에 가까운 파리의 도시공원 중에서 규모, 성격, 특징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22개의 공원을 선정하고 이들을 조성 시기에 따라 네 개의 장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파리 도시공원의 생성과 발전'은 파리 공원 역사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돕는 부분으로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 **조세환**(조경 10회)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2016년 10월 19일(수) 개최된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해당 학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회비 없는 학회로 운영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www.kablu.or.kr).

- **이재준**(조경 20회)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수원시 행정2부시장)는 2016년 12월 5일 과학기술회관에서 환경과조경(사)가 주관하는 '올해의 조경인'에 정책분야에 선정되었다. '올해의 조경인'은 한 해 동안 조경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환경과조경(사)가 선정하고 있다.



- **안승홍**(조경 22회)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난 12월 1일 천안시 '제1회 도시디자인공모전'에서 대상인 '허상(虛像)을 벗었다'를 비롯한 3개의 작품이 수상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 **박윤진**(조경 28회) ㈜오피스박김 대표는 2016년 11월 25일 '얼터너티브 네이처(Alternative Nature)'를 출간했다(박윤진·김정윤 공동 저서). '얼터너티브 네이처'는 인공적이지만 자연의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대체 자연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자연과 도시의 간극을 줄여 오피스박김의 생산 영역을 도시와 건축으로 확장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



10.2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동문 동정

- **최열**(SGS 7기, 환경재단 대표) 팰로우가 재직하고 있는 환경재단은 지난 11월 7일 파리협정 발표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SUN男SUN女" 태양광선언 출범식"을 가졌다. 'SUN男SUN女프로젝트'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아시아 극빈지역에 초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1만 명의 썬남썬녀를 모집 중이다. 환경재단은 2012년부터 아시아 8개국 35개 지역에 태양광 램프(Solar Lamp) 10,270개를 지원했으며, 2014년부터는 학교, 마을공동체 시설에 태양광 충전소(Solar Station)를 설치해, 친환경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유휴전력 활용해 마을 공동의 소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빛과 소형가전을 충전할 수 있는 초소형태양광발전기(Solar Generator)를 보급 하고자 한다.



- **제종길**(SGS 13기, 안산시장) 팰로우는 지난 6월 30일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후원한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에서 공공분야 친환경경영부문 최고의 CEO로 선정되었다.



- **홍석영**(SGS 26기) 팰로우는 지난 11월 21일 함춘회관에서 시집 출판기념회를 가졌고, 11월 28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시집 「바람도 기침을 한다」로 제8회 한국문인협회 서울시문학상을 수상했다.



- 손혁재**(SGS 30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前수원시정연구원장)펠로우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0월 25일 경기도가 주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따복공동체 국제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 참가하였고, 10월 27일에는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4회 유네스코 세계인문학 포럼'에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10월부터 관악구의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 권혁설**(SGS 31기, MIT ZONE 대표) 펠로우가 책임으로 진행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재중 인천관이 11월 1일(화) 개관되었다.



- 류은자**(SGS 31기, 환경조형예술연구소 대표) 펠로우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 11월17일부터 27일까지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국제교류초대전 (JIAF) '일상의 예술, 다시 자연으로'에 작품 '하나뿐이 지구, 빗물나눔'으로 참여했다.



- 이연소**(SGS 31기, 유엘피 소장, 조명디자이너) 펠로우는 11월 4일 (금) 서울시 한강 새빛섬에서 세계 70개 주요 도시가 참여하는 2016 세계도시조명연맹(LUCI) 조명(CPO)수상식 조명디자이너 공모전에 '서울 경의선 숲길' 작품을 출품하여 2등상을 수상하였다.



- 신선숙**(SGS 32기, 엔엠에스 대표) 펠로우는 11월 29일 한국어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가 주최하는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충북지방조달청장상을 수상하였다.



- 조상현**(SGS 32기) 펠로우는 지난 12월 13일 경찰청 인사에서 하남서장으로 진보 발령을 받았다.

SGS 기별 자치회 소식

- SGS 18기 자치회(회장 이민관, 사무국장 김권욱)는 11월 9일, 가을 정기모임으로 근지암 화담숲에서 힐링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SGS 20기 자치회(회장 지승준, 사무국장 김대문)는 12월 3일(토), 인왕산 둘레길 걷기와 서촌 맛집 체험을 하며 힐링과 펠로우 간의 단합을 증진시켰다.



- SGS 28기 자치회(회장 정광희, 사무국장 이상포)는 11월 22일(화) 송파 대나무집에서 총회 겸 송년회를 가졌다. 신임 회장에 윤태권 사장(도원건축), 사무국장에 남정현 대표(천산건축)가 선출되었다. 윤회장은 그동안 수고한 정광희 대표(우림헨스)와 이상포 부사장(정림건축)에게 감사를 표하며 동기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SGS 30기 자치회(회장 강완수, 사무국장 전태효)는 10월 14(금)에 가을 정기모임을 가졌다. 강완수 회장(대동녹지건설 대표)을 비롯한 20여 명의 펠로우가 참여해 낮에는 한양CC에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유성집 서울역점에서 식사를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SGS 31기 자치회(회장 조진형, 사무국장 권수아)는 12월 1일(목)에 양재동 엘타워 디오디아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조진형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펠로우가 함께 하였다. 31기 원우들은 조진형 회장과 이상진 골프모임 대표에게 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대해 감사패 전달하였다.



- SGS 31기 자치회는 12월 8일(목) 남부CC에서 "제1회 SGS 31기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12명의 펠로우가 스피리오펠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롱기스트에 김종주 변호사(법무법인 등우), 니어리스트에 신천희 대표(장수산업), 우승은 이상진 소장(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이 차지하였다.



- SGS 32기 자치회(회장 우승헌, 사무국장 강상범)는 12월 1일(목)에 한미리 역삼점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32기 원우들은 원우들간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노고에 대해 우승헌 회장(동양건설산업 대표)과 지진호 골프모임대표(뉴그린창신 전무)에게 감사패 전달하였다.



- SGS 32기 자치회는 11월 16일(수) 사인데일CC에서 "SGS 32기 골프회 2016년 납회를 가졌다. 지진호 골프모임 대표를 비롯한 12명의 펠로우가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롱기스트에 정홍섭 부사장(다짐), 니어리스트에 우승현 대표(동양건설산업), 우승은 지진호 전무(뉴그린창신)가 차지하였다.



- SGS 33기는 총회를 거쳐 자치회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김재준 방림이엘씨 대표가 자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송영주 선우이엔씨 대표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펠로우들의 교류와 단합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4기 모집 안내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환경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활동으로 발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에 출범하는
34기(6개월 과정)에 참여할 분들을
새해 계획을 구상하는 지금부터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좋은 분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시접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미래전략과정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 전화 880-8525 E-mail snusgs@snu.a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8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년 하반기 뉴스레터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2 행사/학술/연구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4 교수동정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7 시민환경대학
- 8 시민정원사

동문소식

- 9 동창회
- 10 동문동정
- 11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34기 모집 안내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담당교수 윤순진
학과조교 남궁옥, 노초원, 윤병석, 이승지, 임동민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김 배 학생기자 김 수, 김주영 E-Design 흑석동작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08826 서울 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